

고전산문 유대종 픽

<23. 금방울전 : 중요도 : 상>

1. 주변 상황 : 해룡과 금방울의 시련과 극복의 반복 구조

2. 반응 : 시련을 극복하고 행복해짐

3. EBS본문의 내용 요약

: 막씨가 신이하게 태어난 자신의 자식에게 고난(아궁이, 프레스)을 줌

+ 해룡의 부모와의 이별, 그로 인한 고난, 그리고 금방울의 조력

4. 나올 부분

차설. 해룡이 변씨 집을 떠나 남쪽으로 가는데 한 곳에 다다르니 큰 산이 앞길을 막았거늘, 갈 길을 못 찾아 주저할 즈음에 금령(金鈴)이 굴러 길을 인도하였다. 금령을 따라 여러 고개를 넘어가니 절벽 사이에 푸른 잔디와 암석이 바라보이며, 해룡이 돌 위에 앉아 잠깐 쉬고 있었는데, 문득 벽력같은 소리가 진동하며 금털 돋친 짐승이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 해룡을 물려고 하였다. 해룡이 급히 피하려 하였는데 금령이 내달아 막으니, 그것이 몸을 흔들어 변하여 아홉 머리 가진 것이 되어 금령을 집어삼키고 골짜기로 들어갔다.

해룡이 낙담하며 말하기를,

“분명코 금령이 죽었도다.”

하고, 탄식하여 어찌할 줄 몰랐다.

갑자기 한바탕 미친 듯한 바람이 일어나며 구름 속에서

크게 불려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금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저다지 방황하느냐?”

하고, 간 데 없었다.

해룡이 생각하되, ‘하늘이 가르치시나 몸에 촌철(寸鐵)이 없으니 어찌 대적하리오? 그러나 금령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살아났으리오?’ 하고 옷차림을 단단히 하고 뛰어 들어가니, 지척을 분별할 수 없었다. 몇 리를 들어가되 종적이 없거늘, 죽을힘을 다하여 기어 들어가니 홀연 천지가 명랑하고 일월이 조요하였다. 두루 살펴보니 돌 비석에 금자로 새겼으며, ‘남전산 봉래동’이라 하였고, 구름 같은 석교에 만장폭포가 거룩하였다. 거기를 지나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여니 동중에 주궁패궐과 내성 외곽이 은은히 뵈거늘, 자세히 본즉 문 위에 금자로 크게, ‘금선수도부’라 씌어 있었다.

(중략)

해룡이 뛰어 올라가 보니, 그 짐승이 상 위에 누워 앓다가 사람을 보고 일어나려 하다가 도로 자빠지며 일신을 뒤틀며 움직이지 못하고 입으로 피를 무수히 토하였다. 해룡이 하수하고자 하나 손에 촌철이 없었는데, 홀연 미인 한 사람이 칠보홍군을 입고 가볍게 걸어서 벽에 걸린 보검을 갖다가 해룡에게 주었다. 해룡이 급히 칼을 들고 달려들어 요괴의 가슴을 무수히 찌르니, 그 짐승이 그제야 죽어 늘어졌다. 자세히 보니 금 터럭 돋친 암 돼지이거늘, 가슴을 헤치고 보니 금령이 굴러 나왔다. 해룡이 크게 반기며 소리 질러 말하기를,

5. <보기> 예측 : 비교문학적 관점, 고난과 극복의 교차, 변신모티브

(1)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와의 비교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는 납치된 공주와 공주를 구출한 남주인공의 결연담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된 신이담(神異譚)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를 사건 순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하국에 사는 요괴가 공주들을 납치하자 무사와 부하들이 공주들을 구하기 위해 뜻을 모음.
- (2) 무사의 꿈에 나타난 산신령의 도움으로 무사가 바구니를 타고 요괴가 있는 지하국에 진입함.
- (3) 무사가 요괴의 거처에 들어가고, 공주들이 직접 요괴의 약점인 비늘을 떼어내어 죽이는 데 성공함.
- (4) 무사가 공주들은 지상으로 올려 보내지만 부하들의 배신으로 무사는 지하 세계에 남게 됨.
- (5) 무사는 산신령의 도움을 받아 다시 지상으로 나오게 되고, 무사는 공주 중 한 명과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됨.

⇒ 설화에서 남주인공이 찾아간 요괴의 거처에는 공주들이 잡혀 있었다. 또한 금령전에서도 요괴의 거처에는 잡혀 온 공주 일행이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설화와 금령전 모두 요괴의 거처에 공주가 있다는 설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설화에서는 남주인공을 배신하는 부하들로 인해 남주인공이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금령전에서는 이러한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설화에서는 남주인공이 요괴가 있는 지하국에 진입하기 위해 바구니를 이용하지만, 금령전에서는 남주인공이 바구니를 타고 요괴의 거처에 들어가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설화에서는 초현실적 존재인 산신령이 꿈에 나타나 남주인공을 요괴의 거처로 인도하고, 금령전에서는 구름 속에서 신이한 목소리가 들려 해룡이 요괴의 거처로 가도록 이끌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남주인공이 요괴의 거처로 가도록 이끄는 초현실적 존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고난과 극복의 교차 구조

〈금방울전〉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주인공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후, 방울을 깨고 사람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금방울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시련을 겪지만, 방울의 모습을 한 채로 자신의 의지를 지니고 다양한 능력을 발휘한다. 또 주인공이면서도 타인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모습을 강하게 지닌다.

<22. 상녀 : 중요도 : 최하 - 단, 나온다면 비문

학이다.>

1. 나올 포인트 : 성리학적 질서, 여성에 대한 억압 과도

(관련 비문학 읽기) 성리학을 지배 이념으로 삼은 조선이 건국되면서 고려 시대까지 자유로웠던 여성의 일상은 급속도로 억압 받게 된다. 여필종부(女必從夫)가 여성들이 지켜야만 하는 지상 계율로 권장되고, 수절을 강요받기 시작한 것이다. 또 조상에 대한 제사가 강조되면서 혼인의 의미도 변질되어 갔다. 혼인이 남녀 간의 사랑의 결실이기보다는 철저한 가부장 위주의 가족 제도를 계승하는 중요한 방편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이에 따라 혼인은 당사자의 의사는 무시된 채 부모의 강권에 의해 가문 위주로 성사되었다.

조선은 건국 이래 꾸준히 모든 여성의 '열녀 만들기'에 나섰다. 음행을 한 여인을 '자녀안(姦女案)'에 기록하여 신분을 격하시킨다거나, 여성의 정절을 권유하는 「삼강행실도」를 여러 차례 반포한 것도 다 이 때문이었다. 그리고 조선 전기인 성종 16년에는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을 반포했는데, 이것은 특히 사대부가 여인들의 재가를 막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법은 재가한 여인의 자손은 대소의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자손들의 벼슬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었다. 이는 자식의 출세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여성 특유의 모성 본능을 여성의 재가 금지에 악용한 것으로, 입신양명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사대부가에 이 법이 끼친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었다. 조선의 지배층인 사대부가의 부녀들은 이제 공공연하게 수절을 강요받게 되었으며, 자녀의 출셋길을 차마 막을 수 없었던 부녀들은 재가를 포기했던 것이다. 당초 재가 금지는 지배층인 반가(班家)에 국한된 것이었으나 점차 일반 양인 부녀에게까지 전파되었다. 특히 사림파가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한 중종 때부터는 적어도 양반 부녀자에 관한 한 수절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당연한 덕목이 되었다.

조선 전기만 해도 고려 말의 유풍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남녀가 심하게 차별되지는 않았다. 남녀 평등과 차별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잣대는 재산 상속의 차등 여부인데, 현존하는 여러 기록에는 적어도 임란전만 해도 재산 상속에 있어 남녀가 차별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경국대전」에도 철저한 남녀 균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재산 상속의 남녀 평등 경향은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조직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사회 밑바닥에서부터 신분제 해체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갔다. 그러나 광해군과 복인 정권에 비해 명분을 중요시한 인조와 서인 정권은 사회 저변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오히려 신분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게 된다. 신분제 강화 정책이 사상으로 나타난 것이 예학(禮學)인데, 예학의 기본 사상은 각 신분에는 각자 지켜야 할 예가 따로 있다는 것이었다. 즉, 사대부는 사대부의 예가 있고, 중인은 중인의 예가 있으며, 양인은 양인의 예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신분 간의 경계를 넘는 것은 비례(非禮)로서 처벌받아야 했다. 이러한 예학이 여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면서 찬양받은 것이 바로 열녀였으며, '열녀 만들기'는 다름 아닌 신분제를 강화하는

반동수구정책의 산물이었다.

부부란 상호 평등한 인격체이고 부부 사이의 정절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모두 지켜야 할 덕목이다. 그러므로 열녀는 기리지 않고 열녀만 기렸던 조선 사회의 의식 구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 게다가 정절은 스스로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지키든지 말든지 결정해야 할 선택의 문제이지, 무조건 강요할 일은 아니다.

(관련 문학 작품읽기) 제 나라 사람의 말에 "열녀는 두 남자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시경의 '백주'가 그러한 뜻이다. 우리나라 법전에 "개가 자손은 정직에 임명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 법이 어찌 모든 서민을 위해 만든 것이겠는가. 그러나 우리 왕조가 들어선 4백 년 이래 백성들이 오랫동안의 교화에 젖어 여자들이 귀천을 막론하고 반명을 하건 못하건 너나없이 수절을 해서 드디어 하나의 풍속이 되고 말았다. 옛날의 소위 열녀라는 것은 지금의 모든 과부들에게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시골의 어린 아낙이나 여항의 청상들까지도 부모들이 다시 시집 보내려고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자손들의 벼슬길이 막힐 것도 없는데 혼자 지키고 사는 것만으로는 절의가 될 것이 없다고 해서 흔히 스스로 대낮의 밝음을 싫어하고 남편을 따라 무덤에 들어가기를 바란 나머지 물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독약을 마시거나 목을 매달기를 편안한 땅을 밟듯이 한다. 열은 열이지만 지나친 것이 아닐까.

옛날 어떤 형제가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사람의 벼슬길을 막으려고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의논드렸다. 그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그의 벼슬길을 막느냐?"

하고 묻자 그 아들이,

"그의 선조에 과부가 있었는데 바깥 여론이 몹시 시끄럽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규방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하였다.

"바람은 소리만 나지 형태가 없다. 눈으로 살펴도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아도 얻을 수가 없다. 공중에서 일어나 만물을 흔들리게 하니 어찌 이따위 형편없는 일을 가지고 남을 흔들리게 한단 말이냐? 게다가 너희들도 과부의 자식이니, 과부의 자식으로서 어찌 과부를 논할 수 있겠느냐?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 줄 게 있다."

어머니가 품속에서 동전 한 닢을 꺼내 보이면서 물었다.

"이 돈에 윤곽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글자는 있느냐?"

"글자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이게 바로 네 어미가 죽음을 참게 한 부적이다. 내가 이 돈을 십 년 동안이나 문질러서 다 닳아 없어진 거다. 사람의 혈기는 음양에 뿌리를 두고, 정육은 혈기에 심어졌으며 사상은 고

독에서 살며 슬픔도 지극하다. 그런데 혈기는 때를 따라 왕성한즉 어찌 과부라고 해서 정욕이 없겠느냐?

가물가물한 등잔불이 내 그림자를 조문하는 것처럼 고독한 밤에는 새벽도 더디 오더구나. 처마 끝에 빗방울이 똑똑 떨어질 때나 창가에 비치는 달이 흰빛을 흘리는 밤 나뭇잎 하나가 뜰에 훅날릴 때나 외기러기가 먼 하늘에서 오는 밤, 멀리서 닭우는 소리도 없고 어린 종년은 코를 깊이 고는 밤, 가물가물 졸음도 오지 않는 그런 깊은 밤에 내가 누구에게 고충을 하소연하겠느냐? 내가 그때마다 이 동전을 꺼내어 굴리기 시작했단다.

방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동근 놈이 잘 달리다가도, 모퉁이를 만나면 그만 멈추었지. 그러면 내가 이놈을 찾아서 다시 굴렸는데, 밤마다 대여섯 번씩 굴리고 나면 하늘이 밝아지곤 했단다. 십 년 지나는 동안에 그 동전을 굴리는 숫자가 줄어들었고 다시 십 년 뒤에는 닷새 밤을 걸러 한 번 굴리게 되었지. 혈기가 이미 쇠약해진 뒤부터야 이 동전을 다시 굴리지 않게 되었단다. 그런데도 이 동전을 열 겹이나 사서 이십 년 되는 오늘까지 간직한 까닭은 그 공을 잊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야. 가끔은 이 동전을 보면서 스스로 깨우치기도 한단다.”

이 말을 마치면서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다. 군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말로 ‘열녀’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였다.

아아 슬프다. 이처럼 괴롭게 절개를 지킨 과부들이 그 당시에 드러나지 않고 그 이름조차 인멸되어 후세에 전해지지 않은 까닭은 어찌서인가? 과부가 절개를 지키는 것은 온 나라 누구나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죽지 않고서는 과부의 집에서 뛰어난 절개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박지원, 「열녀 함양 박씨전」 -

재)

2. 반응 : 비판

3. EBS 본문 내용 요약 : 선굴자는 똥을 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엄행수를 예덕 선생이라고 부르며 칭송한다. 문하의 제자인 자목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선굴자는 예덕 선생의 적절한 예의와 덕행, 그리고 허례허식하거나 무위도식하지 않는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4. 나올 부분 : 나온다면 EBS 부분 거의 그대로 나올 것이다. OVS 산문에 나온 본문을 잘 읽어보자.

5. <보기> 예측 : 실학중심사상, 허례허식 및 무위도식에 대한 비판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지원은 예리하고 비판적인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았다. 그는 당시 민중이 영위하는 노동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며, 직업 차별을 타파하고자 하는 의지를 작품 속에서 드러내었다. 또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명분만 내세우며 허례허식을 일삼으며 무위도식하는 양반 사회를 풍자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이 작품은 초라한 집에 살며 밥 한 그릇으로도 만족하는 소박한 생활을 실천하는 ‘엄 행수’의 모습을 예찬하며 명분에 집착하여 허례허식을 일삼는 양반 계층을 비판하고 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엄 행수’의 모습에 ‘칭찬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선굴자’의 모습에서 그가 ‘엄 행수’의 노동하는 삶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작품은 당시 천한 일이라 여기던 똥과 거름을 나르는 일을 하면서도 의로움을 지키는 것에 굽힘이 없는 ‘엄 행수’의 모습을 보여 주며, 직업에 대한 차별 의식을 타파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벼으로 삼은 ‘선굴자’의 모습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바라던 작가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

<21. 예덕선생전 : 중요도 : 중>

1. 주변 상황 : 허례허식에 빠진 이들(자목과도 같은 존

<20. 육미당기 : 중요도 : 중상>

1. 주변 상황 : 형의 시기로 인해 위기에 처함

2. 반응 : 권선징악

3. EBS 본문 내용 요약 : 신라 태자 소선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기러기를 통해 전달받고 눈을 뜨게 되는 장면

4. 나올 부분

(1) 백 소저와의 인연을 맺는 장면 혹은 혼사 장애 부분

이윽고 백 소부가 백 소저에게 명하여 가로되,
 “오늘 너를 위해 좋은 배필을 얻었으니 지극한 소원을 이루었도다. 아버지의 명을 사양치 말고 이 시에 화답하여 맹약을 정하라.”

하니, 백 소저가 얼굴에 수줍은 빛을 띠고 오래 주저하다가 화선지 한 폭에 **오연 절구 두 수를 쓰더라.**

봉황새가 단산(丹山)에서 나왔거든
 깃들인 곳 벽오동 아니로다.
 날개가 꺾어짐을 탄식지 말지니
 마침내 하늘에 오름을 보리라.

무성함은 고송(高松)의 자질이요
 푸르름은 고죽(孤竹)의 마음이라.
 사랑스럽다, 세한(歲寒)의 절조여!
 바람과 서리에도 굴하지 않네.

백 소부가 여러 번 낭독하다 감탄하여 가로되,
 “시의 격이 빼어나고 아름다우니 가히 소선의 시와 더불어 서로 백중(伯仲)이 될 만하다. 만일 남자였다면 마땅히 장원 급제하리로다. 그러나 시의 뜻이 스스로 송죽의 절조에 비함은 어찌 된 일이뇨? 후에 시참(詩讖)이 되지 않을까 두렵노라.”

이때 김소선은 대면한 백 소저의 용모를 보지는 못하나, 시구를 듣고는 그 청아함을 사랑하고 품은 뜻에 감복하여 크게 감탄하더라. 백 소부가 김소선의 시를 화선지에 베껴 백 소저에게 주며 가로되,

“반드시 이 시를 깊이 간직하였다가 후에 신물(信物)을 삼으라.” 하고, 또 소저의 쓴 시를 김소선에게 전하여 가로되,
 “그대 또한 이 시를 간직하였다가 부귀하게 되면 이 자리의 맹약을 잊지 마시게.”

하니, 소선과 소저가 절하고 명을 받더라.

[중략 줄거리] 세력가인 배연령의 아들 배득량은 백 소저의 정혼 사실을 알면서도 백 소저와 혼인하고자 한다. 배득량은 백 소저의 외삼촌 석 시랑을 통해 그 뜻을 전하나 백 소부는 단호히 거절한다.

석 시랑이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물러나와, 배득량에게 가 백 소부의 말을 자세히 전하니 득량이 낙담하더라. 이윽고 배연령에게 간청하여 세력으로 억지로 혼인하고자 하더라. 배연령이 평소 득량을 가장 사랑한 고로 말만 하면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니, 이에 석 시랑을 불러 가로되,

“우리 집이 그대의 제부와 벼슬을 함께 하는 우의가 있고 문

별도 서로 결맞으니, 혼인을 맺어 가문의 친밀함을 더한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리오? 그대는 나를 위해 백 소부에게 말하여 혼약을 이루고 속히 좋은 결과를 전할지어다.”

시랑이 이튿날 다시 백 소부의 집에 가 배연령의 말을 전하여 가로되,

“누이 말을 들은즉 생질녀와 정한 배필은 눈먼 폐인이라 하더이다. 아름답고 어진 생질녀를 두고 반드시 이런 폐인을 사위로 삼고자 하니 어찌 사려 깊지 못한 것이 아니리오? 이는 아름다운 옥을 구덩이에 버리고 상서로운 난새를 까막 까치의 짝으로 삼음과 같으니, 깊이 애석하도다. 지금 배 승상은 가장 천자의 총애를 입어 위세와 복록을 이루어 그 권세가 두려울 만하거든, 생질녀의 어짙을 듣고 그 아들 득량을 위하여 반드시 혼약을 맺고자 하니 그 호의를 저버려서는 안 될지라. 바라건대 다시 깊이 헤아려 뒷날 크게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

소부가 듣자마자 크게 노하여 가로되,

“어찌 식견 없는 말을 내는고? 배연령이 아무리 하늘을 태울 기세가 있고, 바다를 기울일 수완이 있더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노라. 더구나 딸아이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였은즉, 폐인이며 폐인이 아님을 논할 것 없이 자네가 간여할 바가 아니로다.”

시랑이 크게 부끄러워 감히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 배연령을 뵈어 가로되,

“백 소부의 뜻이 이미 굳건하니, 온갖 구실로 설득할지라도 돌이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거늘 연령이 노하여 꾸짖어 가로되,

“백문현이 어떤 존재이기에 감히 내 말을 거역하는가?”

드디어 공부 좌시랑 황보박을 부추겨서, 평장사 백문현이 비밀히 변방의 오랑캐와 결탁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피한다고 무고(誣告)하게 하니, 천자가 크게 노하여 백 소부를 형리에게 부쳐 장차 죽이고자 하더라. 여러 대신이 교대로 상소를 올려 지극히 간하니 천자의 노여움이 누그러져서 소부의 작위를 거두고 애주 참군으로 강등시켜 당일로 압송케 하니라. 조명(詔命)이 한번 내리매 만조백관이 두려워하여 감히 다시 간하지 못하고, 백 소부의 집은 상하가 다 통곡함을 마지아니하더라.

(2) 귀환 과정에서의 위기와 금성 공주의 능력

다시 배를 떠나올새 장차 본국 지경이 가까워지더니, 문득 보

매 적안(赤雁)*이 뱃머리에 내려 두어 마디 슬피 울고 동방으로

향하여 날아가거늘, 부마가 괴이히 여겨 금성에게 물어 가로되,
“이것이 무슨 징조니이까?”

금성이 께를 벌여 한 과(課)를 얻고는 크게 놀라서 가로되,
“괘상이 극히 흉하오니, 오늘밤에 반드시 자객이 있어 명공을 해코자 하리이다.”

왕이 이미 세징이 반드시 자객을 보낸 줄 알고 탄식하며 말이 없더라. 금성이 일찍이 옥성에게서 모후의 편지 가운데의 사연을 들었다가, 또 왕이 바다에 제사 지낸 제문을 보고 이에 왕자 세징이 부마를 해코자 하던 일을 깨달아 안지라, 이에 부마에게 말하여 가로되,

“자객이 오는 것이 마땅히 오늘밤에 있으리로되 첩이 스스로 처리할지니, 명공은 염려치 마옵소서.”

드디어 광충·진상 두 사람을 명하여 가정(家丁) 수십 인을 거느리고 선창 좌우에 매복시킨 후 금성이 친히 몸을 단속하고 병기를 갖추어 기다리더라.

(중략)

밤이 장차 깊어 모든 소리가 고요한데, 홀연 보매 한 줄기 흰 무지개가 있어 동쪽으로부터 올새 점점 뱃머리에 가까워지거늘, 금성이 손을 저어 여러 미인으로 하여금 장막 뒤로 피신하게 한 후, 곧 보검을 내어 가지고 가운데에 서 있더니, 문득 보매 한 남자가 손에 큰 칼을 들고 공중으로부터 내려와 곧바로 부마가 앉아 있는 곳으로 향하거늘, 금성이 급히 칼을 들어 치니 그 남자가 가진 칼은 꺾어져 두 조각이 되어 쟁그렁 땅에 떨어지는지라. 금성이 좌우를 호령하여 묶게 하니, 광충·진상 두 장수가 가정(家丁)*으로 더불어 일시에 나와 그 남자를 결박하여 땅에 엎어뜨리더라.

금성이 꾸짖어 가로되,

“너는 어떤 사람인데 깊은 밤에 이르러 부마를 찌르고자 하는가?”

그 남자가 땅에 엎드려 애걸하여 가로되,

“소인은 신라 사람 황운(黃雲)이온데, 평소 검술로 세상에 유명하더니, 왕자 세징이 천금으로 상을 주면서 가만히 소인을 보내어 가서 태자를 찌르고자 한즉, 이것은 소인의 죄가 아니오니 빌건대 잔명을 용서해 주어, 후일에 보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금성이 탄식하여 가로되,

“전금(展禽)*과 도척(盜賊)*을 이제 다시 보는도다.”

왕은 다만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따름이더라. 금성이 가로되,

“이제 내가 너의 남은 목숨을 용서하노니, 가서 다시 오지 말라.”

드디어 명하여 결박한 것을 풀어 가게 하니, 황운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가더라.

이때에 옥성은 설부인과 삼낭자로 더불어 장막 뒤에 피신하고 있다가 이 광경을 보고 마음이 차갑고 뼈가 놀라서, 이윽히 있다가 비로소 정신을 진정하고 바야흐로 나와 금성을 대하여 치하하며 가로되,

“그대는 진실로 천신이로다. 우리들은 자객이 움을 보고 장막 뒤에서도 오히려 덜덜 떨림을 이기지 못하였거늘, 그대는 유독 음성과 안색이 변치 않아 순식간에 자객을 사로잡으니 과연 무슨 술법으로 그러하니이까?”

금성이 가로되,

“이것이 조그마한 재주라. 어찌 죽히 칭찬하리오?”

옥성이 시비를 명하여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부어 왕의 마음을 위로하더라.

이튿날에 왕이 보낸 사자의 배가 이미 득달한지라, 부마가 크게 기뻐 부왕의 하서(下書)를 절하고 받은 후에 즉시 배를 재촉하여 수일을 가다가 본국 땅에 다다르니, 신라왕이 듣고 크게 기뻐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해변으로 나와 태자를 영접할 제, 태자가 일행 여러 사람과 더불어 배에 내려 언덕에 오르니 그 위엄의 성함과 거마(車馬)의 아름다움이 사람의 눈을 현란케 하고, 길 곁에서 보는 자가 담장처럼 늘어서 기뻐 뛰며 태자가 무사히 환국함을 다투어 치하하더라.

태자가 부왕과 모후께 배알하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니, 왕과 왕후가 태자가 엄연히 장성하고 부귀 혁혁함을 보고 희비가 뒤섞여 손을 잡고 통곡하더라.

드디어 궁중으로 돌아와 축하 잔치를 베풀고 두 공주와 설부인, 추향·설향·춘앵이 다 신부의 예로써 시부모에게 나아가 보니, 왕이 옥성과 금성 두 공주를 위하여 의자에 내려 답배하고자 하매 태자가 가로되,

“저 두 공주는 비록 천자의 귀한 소생이나, 신과 대등한 몸이 됐으니, 앗아 그 절을 받음이 예에 마땅합니다.”

왕이 그 말을 따르더라. 왕후가 삼부인, 삼낭자의 화용월태가 아름답기가 선인과 같으매 마음에 심히 공경하며 사랑함을 마지 않더라.

이때에 황운이 생명을 간신히 보전하여 돌아와 세징에게 뵈고 고하여 가로되,

“태자의 배 안의 여러 사람이 다 천신같으니 가히 범하지 못할지라. 소인이 붙잡혔다가 공주의 용서한 바 되어 잔명을 구결하여 돌아왔나이다.”

세징이 황운의 말을 듣고 혼이 사라지고 담(膽)이 떨어지는 듯해 계책을 세우지 못하더라. 그때에 세징이 남해로 갈 때에 가정(家丁) 중에 태자를 잡아 바다에 던진 자가 있더니, 태자에게 죄를 받을까 두려워하여 곧 왕궁에 나아가 자백하니, 왕이 불러들여 자세히 물으신 후, 비로소 세징의 전후의 흉악한 사정을 알고 심히 노하다가 기절하는 지경에 이르니, 좌우가 급히 구하여 오래 있다가 회생한지라. 왕이 미움을 이기지 못하여 곧 세징을 잡아 옥에 내리고 장차 죽이고자 하니, 태자가 관을 벗고 머리를 두드려 피를 흘리며, 울면서 그 죽음을 용서하기를 청하니, 왕이 그 지성에 감격하여 우선 옥에 가두고, 귀인 박씨를 폐하여 서인(庶人)을 삼으니, 조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통쾌함을 일컫지 않는 자가 없더라.

- 서유영, 「육미당기」 -

* 적안(赤雁): 붉은 기러기.

* 가정(家丁): 예전에, 집에서 부리던 남자 일꾼.

* 전금(展禽): 노나라의 대부로 이름난 현인 유하혜를 가리킴.

* 도척(盜賊): 현인 유하혜의 동생으로 무리 9천 명을 이끌고 천하를 횡행한 큰 도둑이었음.

5. <보기> 예측 : 여성 영웅적 요소

「육미당기」는 신라 태자 김소선이 부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찾아가는 탐색 서사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탐

색 서사는 일반적으로 '출발 - 여정 - 귀환'의 구조를 지니는데, 「육미당기」에서는 주인공 소선이 이복형인 세징의 악행으로 '귀환'이 다소 지연되지만 결국 금의환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제목의 '육미당'이 여섯 명의 미인을 둔 소선의 당호라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남녀 결연담에 비중을 두고 서사가 전개되기도 한다. 특히, 소선의 최초 결연자인 금성 공주는 탁월한 무용을 갖춘 영웅적 인물로 군담을 형성하는 중심인물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소선은 무장의 모습보다 뛰어난 통소 솜씨를 지닌 예술가의 면모와 선하고 포용적인 인품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19. 수로 부인 : 중요도 : 하하>

- 1. 주변 상황 : 수로 부인이 아름다운 꽃을 추구함
- 2. 반응 : 신이한 노옹이 꽃을 꺾어 바침
- 3. 나올 부분 : 인간 중심적 미의식

<18. 임진록 : 중요도 : 상>

- 1. 주변 상황 : 전쟁으로 인한 국토 유린 및 피해

- 2. 반응 : 정신적 보상 심리가 이야기로 발현
- 3. EBS 본문 내용 요약 : 사임당이 왜왕을 굴복시키는 장면
- 4. 나올 부분 : 각종 전기적 요소

(가)

이때, 함경도 곡산 땅에 한 사람이 있으되, 성은 김(金)이요 명은 덕령(德齡)이라. 힘은 능히 삼천 근을 들고 신장은 구 척이요, 검술과 육도삼략이 옛날 황석공의 도술을 당하는지라. 아깝도다. 이때는 부친의 초토(草土)* 중에 있고, 모부인을 섬겨 하루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들으니 왜적이 백리안에 온다 하거늘 모부인에게 여주오되,

“국운이 불행하여 왜적이 산과 들에 가득 찼사오니, 소자가 비록 초토에 있사오나 지금은 국사가 망극하오니 신민의 도리어 어찌 편안하오리이까? 나아가 도적을 물리치고 즉시 돌아오리이다.”

부인이 책망하여 왈,

“너는 어찌 무지한 말로 어미를 놀라게 하느냐? 공자(公子)는 구 년 거상(居喪)이요, 군자(君子)는 육 년 거상이요, 대부(大夫)는 삼 년 거상이라. 네 어찌 무슨 지략으로 사정에 어두운 말을 하느냐? 만일 내 말을 거역하면 모자지의(母子之義)를 끊으리라.”

덕령이 다시 말을 못하고 마음을 억누르고 있더니, 수일 후 들으니 도적이 머지않아 들어온다 하거늘, 마음이 송구하여 슬하를 떠나 가동청정의 집에 자취도 없이 들어가 외쳐 왈,

“나는 조선 장수 김덕령이라. 왜적의 씨를 없이하려니와 천운이 불행하여 내 몸이 상중에 있기로 너희를 이제까지 살렸도다. 무지한 왜적은 천위를 모르고 외람되어 조선을 침범하였으니 목숨을 아끼거든 바빠 살아 가라. 너의 명이 내 수중에 달렸으니 빨리 돌아가라. 만일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일 오시(午時)에 올 것이니, 그때를 기다려 재주를 구경하되 백지를 오려 너희 군졸 머리 위에 날날이 붙이고 기다리라.”

하고, 마침 간데없거늘, 가동청정이 대로하여 수문장을 베어 장대에 달고 왈,

“문을 어찌 지켜 요망한 놈이 임의로 출입하는가.”

하고, 군중에 전령하여,

“백지를 오려 머리 위에 날날이 붙여라. 내일 오시에 요망한 놈이 반드시 올 것이니, 동정을 살피되 일시에 함께 총과 활을 쏘아라.”

하고, 이튿날 오시가 되도록 종적이 없더니, 오시 후에 북쪽 으로부터 일점 흑운이 일어나며 광풍이 대작하고 시석(矢石)*이 날리며 큰 나무가 부러지며 천지가 뒤넘는 듯하더니 공중에서 한 소년이 상복을 입은 채 포선(布扇)*을 들고 오른손으로 억만 군중 백화 발이 된 백지를 거두어 쥐고 천둥같이 호령 왈,

“너희는 내 재주를 보라. 내 몸이 상중이 아니면 너희 장졸의 머리를 이 종이같이 경각에 거두고자 하나니, 너희가 목숨을 아끼거든 빨리 퇴병하라. 만일 나의 말을 업신여기면 내 포선으로 너희를 씨도 없이하리라.”

하고 간데없거늘, 가동청정이 간담이 서늘하여 차탄 왈,

“내 팔 년 동안 도술을 배워 조선에 나왔으되 저러한 재주는 처음이라. 천신 같도다.”

하고, 진을 풀어 조섭의 진과 합하고자 하더라.

(나)

왜왕이 조선 생불 온단 말을 듣고 모든 신하를 모아 의논 왈,
“조선 생불이 온다 하니 반드시 묘계 있으리니 어찌하리오.”

승상 홍굴통이 주왈,

“생불은 조화 있나니 한 계고 있사오니, 조선 사신 오는 길에
일만 팔천 구백 칸 병풍으로 일만 팔천 구십 자 시문(詩文)을
써 붙이고 외우라 하여, 외우지 아니하오면 반드시 도술이 있
는지 진위(眞僞)를 알 것이니이다.”

왜왕이 옳이 여겨 조선 생불을 대접하라 하고, 왜왕이 사신을
데리고 나와 사명당을 맞아 예를 마친 후에 왜왕이 사명당에게
왈,

“생불은 모르는 것이 없다 하오니, 들어오는 길에 있던 병풍에
써 붙인 시문을 외울 수 있습니까?”

사명당 왈,

“왕은 삼척동자의 조롱이로다. 물어 무엇하리오.”

“그 병풍이 일만 팔천구백 칸이라는데 그 시문을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사명이 엄주를 왼손에 들고 가사를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이튿날 오시(午時)까지 일만 팔천 팔백 구십 구 칸 시문을 외
니, 왜왕과 모든 신하가 놀라 고왈,

“한 칸을 모르니 어인 일고?”

사명당 왈,

“보지 못한 글을 어찌 알리오.”

왜왕이 사람을 보내어 병풍을 점검(點檢)하니, 한 칸이 과연
바람에 덮였는지라.

더욱 놀라 모계(謀計)를 의논하니, 한 신하 주왈,

“남문 밖에 한 못이 있으며 깊이가 만여 장이라. 구리쇠로 천근
방석을 만들어 주며 생불더러 저 방석을 타고 저 물 위에 떠다
니게 하라. 만일 시행치 아니하면 살기를 바라리오.”

왜왕이 옳이 여겨 사명을 데리고 장막을 치고 놀다가 천 근
방석을 내어 놓고 왈,

“생불은 저 방석을 타고 저 물 위에 다니면 생불의 도술을 알
리이다.”

사명이 잠소(潛笑)*하고 사해 용왕(龍王)을 불러 육정 육갑
(六丁六甲)을 외고 방석을 타고 물 위에 떠서 다니니, 동풍 불
면 서로 행하고 남풍이 불면 북으로 행하는지라. 호령 왈,

“왜왕은 들으라. 나는 석가여래 제자라. 물 위에서 이렇듯이
노니니 풍악을 갖추고 친히 나와 춤을 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큰 화를 당하리라.”

(중략)

채만홍이 주왈,

“신의 소견은 철마를 만들어 불같이 달구고 사명당을 태우면
비록 부처라도 능히 살지 못하리이다.”

왜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풀무를 놓고 철마를 지어 만
든 후 백탄을 피같이 쟁고 철마를 그 위에 놓아 불같이 달군 후
에 사명당을 청하여 가로되,

“저 말을 능히 타면 부처 법력을 가히 알리라.”

사명당이 심중에 망극하여 납관을 쓰고 조선 향산을 향하
여 사배하더니 문득 서녘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천지가
희미하거늘 사명당이 마지못하여 정히 철마를 타려하더니 홀

연 벽력 소리 진동하며 천지 뒤눕는 듯하고 태풍이 진작하여
모래 날리고 돌이 달음질하고 비 바가지로 담아 붓듯이 와
사람이 지척을 분변치 못하는지라. 경각 사이에 성중에 물이
붙어 넘쳐 바다가 되고 성외의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는 자
수를 아지 못하되 사명당 있는 곳은 비 한 방울이 아니 젖는
지라. 왜왕이 경황실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천위를 안정하리오.”

예부상서 한자경이 주왈,

“처음에 신의 말씀을 들었사오면 어찌 오늘날 환이 있으리이
까. 방금 사세를 생각하옵건대 조선에 항복하여 백성을 평안히
함만 같지 못하나이다.”

왜왕이 자경의 말을 듣고 마지못하여 항서를 써 보내니 사명
당이 높이 좌하고 삼해 용왕을 호령하더니 문득 보하되,

“네 나라 항복받기는 내 손아귀에 있거니와 왜왕의 머리를 베
어 상에 받쳐 들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일본을 멸하여 산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네 돌아가 왜왕에게 자세히 이
르라.”

사자 돌아가 전말을 고하니 왜왕이 이 말을 듣고 머리를 숙이
고 능히 할 말을 못하거늘 관백이 주왈,

“전하는 모름지기 옥체를 진중하소서.”

왕이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남은 백성이 살기를 도모하여 사
면팔방으로 헤어져 우는 소리, 유월 염천에 큰비 오고 방초중의
왕머구리 소리 같은지라. 왕이 이 광경을 보니 만신이 떨려 능
히 진정치 못하거늘 관백이 다시 가지고 들어가 사명당께 드리
니 사명당이 항서를 보고 대책 왈,

“네 왕이 항복할진대 일찍이 항서를 드릴 것이어늘 어찌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하고 용왕을 불러 이르되,

“그대는 얼굴을 드러내어 일본 사람을 보게 하라.”

용왕이 공중에서 이 말을 듣고 사람의 머리를 베어 들고 소리
를 벽력같이 지르고 운무 중에 몸을 드러내니 사명당이 관백에
게 왈,

“네 빨리 돌아가 왜왕에게 일러 용의 거동을 보게 하라.”

관백이 돌아가 그대로 고하니 왜왕이 창황 중 눈을 들어 하늘
을 치밀어 보니 중천에 삼룡이 구름을 피우고 사람의 머리를 베
어 들었으니 형세 산악 같고 고기 비늘이 어지러이 번쩍여 일광
을 바수고 소리 벽력같아 천지진동하는지라. 이진걸이 주왈,

“본국 보화를 다 바치고 항표(降表)를 올려 애걸하소서.”

왕이 즉시 이진걸을 명하여 항표를 올린대 사명당이 대로 왈,

“네 나라 임금의 머리를 베어 들이라 한대 마침내 거역하니
일본을 무찔러 혈천을 만들리라.”

하고 인하여 육환장을 들어 공중을 향하여 축수하더니 문득
뇌성벽력이 진동하여 산악이 무너지는 듯 천지 컴컴한지라. 왜
왕이 이때를 당하여 삼혼(三魂)이 흩어지며 칠백(七魄)이 달아
나니라.

-작자 미상, <임진록>-

*초토: '거적자리와 흙 베개'라는 뜻으로, 상중에 있음을 이르는
말.

*시적: 전쟁에 쓰던 화살과 돌.

*포선: 상주가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는 부채.

5. <보기> 예측 : 보상

— < 보 기 > —

「임진록」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역사군담 소설이다. 이 작품은 임진왜란 이후에 전란으로 인해 상처받은 민족적 자존감을 보상하려는 의도에 따라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가공의 사건을 형상화하거나 신이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을 내세워서 조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다.

<17. 바리데기 : 중요도 : 하 : 단독으로 내기 어려움(심청전)>

1. 주변 상황 : 딸이라고 버림받음
2. 반응 : 효를 지킴
3. EBS 본문 내용 요약 :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의 딸 바리공주가 버림받는 과정
4. 나올 부분

아기가 한 곳을 바라보니, 동에는 청유리(靑琉璃) 장문(牆門)이 서 있고, 서에는 백유리(白琉璃) 장문이 서 있고, 남에는 홍유리(紅琉璃) 장문이 서 있고, 북에는 흑유리(黑琉璃) 장문이 서 있고, 한가운데는 정렬문(貞烈門)이 서 있는데, 무상신선이 서 계시다.

키는 하늘에 닿은 듯하고, 얼굴은 쟁반만하고, 눈은 등잔만하고, 코는 줄병 매달린 것 같고, 손은 소뎡만하고, 발은 석 자 세 치라.

하도 무서웁고 끔찍하여 물러나 삼배를 드리니,

무상신선 하는 말이,

“그대가 사람이뇨 귀신이뇨? 날짐승 길버러지도 못 들어오는 곳에 어떻게 들어왔으며 어디서 왔느냐?”

“나는 국왕마마의 세자로서, 부모 봉양 왔나이다.”

“부모 봉양 왔으면은 물값 가지고 왔소? 나무값 가지고 왔소?”

“충망길에 잇었나이다.”

“물 삼 년 길어 주소. 불 삼 년 때어 주소. 나무 삼 년 베어 주소.”

석 삼 년 아홉 해를 살고 나니 무상신선 하는 말이,

“그대가 앞으로 보면, 여자의 몸이 되어 보이고 뒤로 보면 국왕의 몸이 되어 보이니, 그대하고 나하고 백년가약을 맺어 일곱 아들 산전 받아 주고 가면 어떠하뇨?”

“그도 부모 봉양 할 수 있다면은 그리하성이다.”

천지(天地)로 장막(帳幕)을 삼고, 등척으로 베개 삼고, 잔디로 요를 삼고, 폐구름으로 차일(遮日) 삼고, 셋별로 등촉(燈燭)을 삼어, 초경(初更)에 허락하고, 이경(二更)에 머무시고, 삼경(三更)에 사경 오경에 근연 맺고, 일곱 아들 산전 받아 준 연후에,

아기 하는 말씀이,

“아무리 부부 정(情)도 중하거니와 부모 소양 늦어 가네. 초경에 꿈을 꾸니, 은바리가 깨어져 보입디다. 이경에 꿈을 꾸니, 은수저가 부러져 보입디다. 양전마마 한달한시에 승하하옵신게 분명하오. 부모 봉양 늦어 가오.”

“앞바다 물 구경하고 가오.”

“물 구경도 경이 없소.”

“뒷동산의 꽃 구경하고 가오.”

“꽃 구경도 경이 없소.”

“전에는 혼자 홀아비로 살아 왔거니와 이제는 여덟 홀아비가 되어 어찌 살나오?”

“일곱 아기 데리고 가오.”

“그도 부모 소양이면 그리하여이다.”

큰 아기는 걸니시고 어린 아기 업으시고,

무상신선 하시는 말씀이,

“그대 뒤를 좇으면은 어떠하오?”

“여필중부라 하였으니 그도 부모 소양이면 그리하여이다. 한 몸이 와서 아홉 몸이 돌아가오.”

- 작자 미상, 「바리데기」

* 소양 : 효도로 봉양(奉養)함.

* 라화 : 비단으로 만든 꽃.

* 선후망의 아모 망재 : 먼저 죽은 사람이든 나중 죽은 사람이든 어느 망자(亡者)나.

* 양마구리 끌 듯하는구나 : 귀신들의 행동이 참깨구리가 소란스럽게 울부짖으며 뛰어다니는 것과 같다는 뜻.

5. <보기> 예측 : 남아 선호 사상, 여성의 고통

— < 보 기 > —

<바리공주> 이야기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수난이 상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여성의 능력이 남성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활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으며, 가사 노동과 양육이라는 성 역할만을 요구받았다. 특히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효’라는 명분 아래 가족을 위한 희생을 무의식적으로 강요당하기도 했다. 특히 ‘아기’가 무상 신선의 청혼에 “그도 부모 봉양 할 수 있다면은 그리하성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에서 결혼을 주체적인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효’라는 명분 아래에서 가족을 위한 희생을 강요당한 결과로 봄이 바람직하다.

<16. 최척전 : 중요도 : 상>

1. 주변 상황 : 전쟁으로 인한 이산
2. 반응 : 이별과 재회의 반복, 행복한 결말

3. 전체 내용 요약 : 만남(최척과 옥영), 1차 헤어짐(전쟁 징집), 재회 및 결혼, 2차 헤어짐(최척과 옥영, 몽석의 헤어짐), 재회(최척과 옥영 재회), 3차 헤어짐(최척과 옥영-몽선 사이의 헤어짐), 재회(최척과 몽석의 재회, 가족 전체 재회)

4. 나올 부분

최척은 편지를 다 읽은 후 마음이 더욱 기뻐서 자기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아뢰어 말했다.

“들으니, 과부 심 씨가 서울에서 내려와 정 씨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딸이 결혼할 나이인 데다가 용모가 매우 아름답고 성격이 온순하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불초한 자식을 위해 시험 삼아 정상사에게 구혼해 보십시오. 만약 이 일을 늦추시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구혼하게 된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니, 우리가 먼저 구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저들은 귀족으로 멀리 타향에 와서 잠시 더부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유한 집에 혼처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집은 본래부터 가난하니 저들이 우리의 구혼을 기꺼워할 리가 없다.”

최척이 거듭 간청하여 말했다.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이에 최척의 아버지가 가서 물으니, 상사가 말했다.

“나의 표매*가 서울에서 피난을 와 궁박하게 내 집에 머물러 있는데, 그녀의 외동딸이 자색이 뛰어나고 재주와 행실이 보통이 아니라네. 그래서 내가 바야흐로 신랑감을 구해 가정을 이루게 하려고 하네. 진실로 자네의 아들이 훌륭한 사윗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지 자네가 가난한 것이 걱정일세. 그러나 내가 마땅히 누이와 상의를 해서 다시 알려줍세.”

최숙이 집으로 돌아와 이러한 말을 전하자, 최척은 초조한 모습으로 상사의 회답이 오기를 고대하였다. 상사가 심 씨에게 최숙이 구혼한 사실을 이야기하니, 심 씨가 거절하며 말했다.

“저는 온 집안이 유리(遊離)되어 의탁할 곳 없이 외롭고도 어렵사리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반드시 부유한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어 의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랑이 비록 어질다고는 하나 그 집안이 매우 가난하다고들 하니,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날 밤 옥영이 어머니 곁으로 가서 말을 하려다가 머뭇거리니, 어머니가 말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숨기지 말고 털어놓아라.”

옥영이 얼굴을 붉히고 말을 못하다가 억지로 입을 열어 말했다.

“아버님께서 저를 위해 사위를 고르시되 반드시 부유한 사람만을 구하려고 하시니, 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집안이 부유하고 사윗감마저 어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집안은 비록 먹을 것이 풍족하더라도 사윗감이 어질지 못

하다면, 그 집안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이 어질지 못하는데 제가 그를 남편으로 섬긴다면, 비록 곡식이 있다고 한들 그가 능히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생을 몰래 살펴보니,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우리 아저씨께 와서 성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배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는 결코 경박하거나 방탕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을 배필로 삼을 수만 있다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물며 가난한 것은 선비의 본분이요, 떳떳하지 못한 재물은 뜬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청컨대 최생으로 마음을 정하시어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은 처녀가 제 입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제 일생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부끄러움을 꺼려 하여 침묵을 지킨 채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용렬한 사람에게 시집가서 일생을 그르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깨어진 시루는 다시 완전하게 하기 어려우며, 물을 들인 실은 다시 회개 할 수 없듯이 일이란 한 번 그르치면 서제막급(噬臍莫及)*입니다. 하물며 지금 제 처지는 다른 사람과 달라 집에는 엄한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왜적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진실로 참되고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두 모녀로 하여금 우리 가문의 운명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지금은 차라리 안 씨가 결혼을 요청하고 서매가 스스로 낭군을 선택한 것을 본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의 속마음을 숨긴 채 단지 남의 입만 바라보면서 가까운 곳에 있는 배필을 가만히 놓아두어야 하겠습니까?”

옥영의 모친은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정공에게 아뢰어 말했다.

“제가 밤에 다시 생각해 보니, 최 씨가 비록 가난하지만 그의 아들이 준수하며 빈부(貧富)는 하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구혼하기보다는 차라리 최랑을 사위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공이 말했다.

“누이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반드시 일이 성사되도록 권하리라. 최랑이 비록 한미한 선비이나 됴됨이가 옥처럼 훌륭하여 서울에서도 이 같은 사람은 거의 찾을 수 없을 게다. 저 사람이 만약 학업을 완수한다면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될 것이니, 어찌 숙맥(菽麥)과 같은 사람이겠는가?”

(중략)

이 사실을 알게 된 옥영은 밤에 어머니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며 말했다.

“최생의 거취는 의병장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최생이 자기 마음대로 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생의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곧바로 언약을 저버리시니 이보다 옳지 못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제 의지를 꺾으려 하신다면 저는 죽어도 다른 곳으로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하늘같은 어머니께서도 몰라주시는데 남들이 어떻게 제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어머니가 말했다.

“너는 어찌 이렇듯 심하게 고집을 부리느냐? 아아 어린 네가

무엇을 알겠느냐? 너는 마땅히 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심씨는 딸의 말을 용납하지 않고 더 들을 생각도 없어 곧 잠 자리에 들었다. 한밤에 심씨가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문득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소리가 베갯머리까지 세차게 들려왔다. 잠에서 깨어나 딸이 자던 자리를 어루만져 보니 딸이 그 자리에 없었다.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다급히 찾아보니, 옥영이 비단수건으로 목을 매고 창살 아래 엎드려 있었다. 손발이 모두 차고 숨소리가 점차 희미해졌으며, 호흡만 목구멍 속에서 오락가락하였다. 심씨는 황망히 목에 매인 수건을 풀고 옥영을 끌어안아 일으켰다. 이때 춘생이 등불을 밝히고 와서 물을 몇 모금 입에 흘려 넣자, 옥영이 겨우 입으로 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옥영이 깨어남에 온 집안이 발각 뒤집혀 너나없이 달려와서 옥영을 구완하였으며, 이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양씨 집안과의 혼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때 최숙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양씨 집안과의 혼사 문제 등 그동안의 모든 사실을 다 알려 주었다. 최척은 바야흐로 옥영에 대한 그리움으로 오래도록 병이 낫지 않고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는 병과 그리움이 두 배나 더 심해졌다. 의병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최척을 진중(陣中)에서 내보내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최척은 며칠 동안 몸을 조리하고 난 뒤에 점차 병이 낫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11월 초하룻날 정진사 집에서 혼례를 치렀다. 아름다운 두 남녀가 서로 합치게 되니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중략)

옥영은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는 것을 아는지라, 처연히 최척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인간 세상에는 뜻하지 않은 변고가 있고, 좋은 일은 귀신이 시기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이나 헤어지고 다시 만날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항상 이것이 근심스러워 마음이 절로 슬퍼지곤 합니다.”

최척이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여 말했다.

“굽었다가 펴지고 가득 찼다가 텅 비게 되는 것이 천도의 항상된 이치요, 길흉과 회한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겪을 일일 것이요, 만약 불행히 하늘에서 부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어떻게 슬픈 처지를 한탄하면서 몸과 마음을 게을리할 수가 있겠소? 부질없는 근심과 고민으로 즐거운 마음을 해칠 필요는 없소.”

이 이후로 최척과 옥영의 애정은 더욱 돈독해졌으며, 서로를 지음(知音)으로 자처하면서 하루도 떨어져 생활하는 일이 없었다.

정유년 8월에 왜구가 남원을 함락하자 사람들이 모두 피난가 숨었으며, 최척의 가족들도 지리산 연곡사로 피난을 갔다. 최척은 옥영에게 남장(男裝)을 하게 했는데, 못사람에 뒤섞이어도 보는 사람마다 옥영이 여자인 줄을 몰랐다. 지리산으로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나자 양식이 다 떨어지고 거의 굶주리게 되었다. 최척은 장정 서너 사람과 함께 양식도 구하고 왜적의 형세도 살펴볼 겸 산에서 내려왔다. 최척 일행은 구례에 이르러 갑자기 적병을 만나게 되었는데 모두 바위 골짜기에 몸을 숨겨 붙잡히는 것을 겨우 면했다.

이날 왜적들은 연곡사로 쳐들어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약탈해 갔다. 왜적들이 물러가기를 기다렸다가 간신히 연곡사로

들어와 보니, 시체가 절에 가득히 쌓여 있고 피가 흘러 내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숲 속에서 신음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최척이 달려가 찾아보니, 노인 몇 사람이 온몸에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최척을 보자 통곡하며 말했다.

“적병이 산에 들어와서 삼일 동안 재물을 약탈하고 인민들을 베어 죽였으며, 아이들과 여자들은 모두 끌고 어제 겨우 섬진강으로 물러갔네. 가족들을 찾고 싶으면 물가에 가서 물어보게나.”

최척은 하늘을 부르짖으며 통곡하고 땅을 치며 피를 토한 뒤, 즉시 섬진강으로 달려갔다.

- 조위한, 「최척전(崔陟傳)」 -

5. <보기> 예측

< 보 기 >

「최척전」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군담소설이자 애정소설이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전란으로 인한 당대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작품에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바로 ‘옥영’이다. 옥영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아가기 때문이다.

<15. 주생전 : 중요도 : 중하 - 거의 부부의 세계급>

1. 주변 상황 : 이미 연인이 있음

2. 반응 : 새로운 애정 추구 (선화)

3. EBS 본문 내용 요약 : 주생이 배도를 만나 사랑에 빠졌으나, 승상 덕 딸 선화에게 사랑에 빠진 이야기, 배도는 배신감에 앓다가 죽지만 끝까지 주생을 사랑함을 알 수 있음.

4. 나올 부분 : 전체적인 내용을 숙지하라.

주생전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생을 객사에서 만 만난 '내'가 주생에게 들은 내용을 글로 쓰게 된다. 주생이 배를 띄우고 잠들었다가 '전당'에 도착하여 어릴 적 친구인 배도를 만난다. 이 때 주생은 배도에게 연정을 느끼고 동거를 하게 된다. 그런데, 배도를 찾으러 선화의 집에 갔다가 선화를 보고 그녀에게 반한다.

<관련 부분> : 주생은 몸을 숨긴 채 다가가서 숨을 죽이고 엿 보았다. 금빛 병풍과 채색 담요가 황홀하여 눈이 부시었다. 부인은 붉은 비단 적삼을 입고 백옥(白玉) 방석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나이는 50세 정도 되어 보였으나 지긋이 한 쪽 눈을 감고 돌아보는 태도에는 아직 예전의 어여쁜 모습이 남아 있었다. 꽃다운 나이의 소녀가 부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구름처럼 고운 머릿결에는 푸른빛이 맺혀 있고 아리따운 뺨에는 붉은빛이 어리어 있었다. 밝은 눈동자로 살짝 흘겨보는 모습은 흐르는 물결에 비친 가을 햇살 같았으며, 어여쁨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미소는 봄꽃이 새벽 이슬을 머금은 듯 했다. 배도가 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배도는 그 소녀에 비하면 봉황에 섞인 갈가마귀나 올빼미요, 옥구슬에 섞인 모래나 자갈일 뿐이었다. 그 소녀를 본 주생은 낮이 구름 밖으로 날아가고 마음이 공중에 뜬 듯이 황홀하였다. 그래서 몇 번이나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 들어갈 뻔했다.

마침, 선화의 동생인 국영이 가르침을 청해 와 그의 집에서 거하게 되며 밤을 틈타 선화를 만나 사랑을 이루고 매일 밤 남 몰래 만나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도의 질투로 인해 주생은 선화와 헤어져 있으며 간절히 서로를 그리워하고, 배도가 병으로 죽은 뒤 주생은 친척의 도움으로 선화와 혼약을 한다.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 주생은 왜적의 침입으로 인해 구원병으로 징발되어 참전하게 되고 전쟁 중 선화에 대한 그리움으로 병이 들어 객사에 머물게 된다.

<보 기>

「주생전」은 '주생'과 '배도', '선화'의 관계를 그린 애정 소설이다. 주생은 기생인 배도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배도는 주생과의 사랑을 통해 과거의 사대부 신분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주생은 선화를 보고 난 후 마음이 선화로 옮겨 가게 된다. 선화는 처음에 주생의 구애를 받아들이는 것에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결국 주생에 대한 애정을 키워 간다. 이처럼 주생전은 각각의 인물들이 가진 욕망의 실현 과정과 어긋남을 통해 인간이 사랑이나 운명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보여 주고 있다.

5. <보기> 예측

<14. 콩쥐팥쥐전 : 중요도 : 중상>

1. 주변 상황 : 팔쥐와 계모의 괴롭힘으로 인한 콩쥐의 고통

2. 반응 : 적극적인 자세로 극복함 (전기적 요소가 있음)

3. EBS 본문 내용 요약 : 콩쥐가 연꽃으로 오색 구슬로 변신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자기의 남편인 감사에게 전달하는 내용

4. 나올 부분 : 콩쥐의 결혼, 팔쥐의 콩쥐 살해

관차가 그 말을 듣고 콩쥐를 불러 내어 신을 신어 보게 하자, 콩쥐가 부끄러워 낯을 붉히며 간신히 발을 내밀어 얇전한 발부리를 신짚 안에 들여 놓으니 살며시 쪽 들어가 맞는 것이었다. 의심할 바 없는 콩쥐의 신이었다. 관차가 콩쥐에게 허리를 굽혀 절하고서 이내 가마 한 채를 꾸며 가지고 와서는 관가로 들어갈 것을 청하였으나 콩쥐는 아직도 시집가지 않은 처녀의 몸이라 괴이쩍은 생각도 들고 무서운 생각도 없지 않아 외삼촌께 말씀할 여쭙고 동행키로 하였다.

콩쥐의 가마가 관가에 당도하자 관문 앞에서 사체를 치우고 외삼촌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감사는 소식을 고대하던 참이라 신짚을 잃은 처녀가 삼문 밖에 대령하였다는 말을 듣고 적이 놀라는 기색이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감사는 성이 김씨였다. 김감사는 일찍이 아들 하나 두지 못하고 부인을 잃은 고적한 신세였다. 부인이 별세한 후로는 첩도 두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어가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만큼 자연 신기한 것을 즐겨 연구하는 성벽이 생겨 조그마한 일일지라도 눈에 띄고 귀에 들리는 것이 기이하게 여겨지면 기어이 알아 내고야 말았다.

도입하던 그 날만 하더라도 이상한 서기를 보고 또 그 곳에서 새신짚을 얻었으므로 호기심에서 그 신 임자를 만나 보았으면 하였던 것인데, 뜻밖에도 신 임자를 찾으러 나갔던 관차가 관령만을 중히 여긴 나머지 남의 집 처녀를 데려왔다고 하므로 김감사는 매우 놀랐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처녀이기에 신짚에게 그토록 서기가 생기는가?” 하고 자세한 연유를 그 외삼촌에게 물었으나 외숙 되는 사람도 서기가 난 까닭에 대해서는 뭐라 대답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콩쥐로 하여금 친히 대답하도록 하였다.

콩쥐는 모친의 상사를 당한 일로부터 시작하여 계모 배씨가 들어온 이후에 있었던 그 동안의 일을 낱낱이 아뢰었다.

감사는 놀라는 한편 기뻐하며 이윽고 그 외숙에게 콩쥐와 혼인할 뜻을 밝히고 그 의사를 물었다.

“저로서야 여찌 복종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질녀의 부친이 있으니 일단 물러가 상의하고 다시 돌아와 아뢰겠습니다.”

최만춘으로서야 콩쥐의 영화를 싫어할 리 만무한 것이었다. 곧 혼인을 승낙하며 한편 택일을 서둘러서 감사의 재취 부인

으로 온갖 예를 갖추어 콩쥐를 시집보내게 된 것이다.

(중략)

그때 감사는 공청에 나가고 다만 홀로 콩쥐가 좋은 옷을 입고 아담하게 꾸며 놓은 후원 연못가의 별당에서 난간에 의지하여 힘있게 솟아오른 연꽃을 구경하고 있었다. 팔쥐는 거짓으로 반색을 하며 달려들어 농치는 것이었다.

“에구머니, 형님 그동안 혼자서만 편안히 지내셨구려? 보기 싫은 이 팔쥐는 형님이 출가하신 후 시시로 형님 생각이 간절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여 형님을 보러 왔소. 내가 전엔 철없이 형님한테 응석처럼 한 노릇인데 지금 생각하면 잘 못한 것 같아 그 뉘우침이 뼈에 사무친답니다. 그렇더라고 형님은 그런 것을 속에다 품어두시지 마시오. 우리 형제가 범연하게 지내지는 맙시다.”

본래 악의가 없는 사람은 속기를 잘하는 법이다. 콩쥐는 그 말을 듣더니 역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었다.

‘저것이 아무리 그 전엔 나를 그토록 모해했더라도 그때는 철을 모를 때요, 이젠 나이가 들어 깨달은 바 있기에 저토록 사과하는 것이니 기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콩쥐는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살아가는 형편도 물어보고 하면서 집안 구경도 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때 팔쥐는 외양과는 달리 내심으로는,

‘콩쥐, 저년을 어떻게 하면 음도 짝도 없어지게 할꼬?’

하는 간악한 심술이 북받쳐 뱃속으로 온갖 피를 꾸며가며 콩쥐를 따라 별의별 화초와 온갖 화초를 구경하다가 연당 앞에 이르자 문득 한 묘계를 생각해 내고 목욕하자고 권하였다. 그리하여 콩쥐와 팔쥐는 옷을 못가에 벗어 놓고 연못으로 들어가 목욕을 하게 되었다.

팔쥐는 슬금슬금 콩쥐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가서 별안간 연못속으로 밀어 넣었다. 위낙 순식간의 일이었다. 그러니 어쩔 도리 없이 콩쥐는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슬프다! 콩쥐가 겨우 잡은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 보기도 전에 이렇듯 연못 귀신이 되고 말 줄이야 누가 꿈엔들 알았으랴?

간특하고 요사스럽고 악한 팔쥐는 콩쥐가 물속으로 들어간 채 물거품만 두어 번 솟구쳐 올랐을 뿐 이내 그대로 잠잠해지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서야 마음이 통쾌해져서,

“이렇게 쉽게 내 계교대로 되는 것을 쓸데없이 오랫동안 마음을 썩였구나!”

라고 뇌까리면서 입가에 웃음을 띠며 급히 밖으로 나와서는 콩쥐의 옷을 제가 주워입고 제 옷을 거두어 치워 버린 다음 태연한 모습으로 마치 콩쥐인 양 별당 난간에 의지하여 연꽃을 바라보면서 못내 기뻐하는 것이었다.

감사가 이때 공사를 마치고 내아로 들어가자 계집 하인이,

“마님께서는 후원 별당에서 홀로 연꽃을 구경하고 계십니다.”

하므로 감사는 발길을 후원으로 돌렸다.

감사는 콩쥐를 맞아들인 후로는 공사만 끝나면 콩쥐와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하던 터였다. 그러므로 홀로 연꽃을 구경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자기도 역시 연꽃을 구경하며 아울러 콩쥐가 연꽃을 사랑하는 의취도 들어 보려는 생각에서 급히 별당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때까지 난간에 기대어 꽃구경을 하고 있던 팔쥐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웃음 띠 얼굴로 내려와 맞자 감사도 또한 기쁜 낯으로 부인의 손목을 잡고서 다시 별당 난간으로 올라가 웃으며,

“부인은 연꽃 구경으로 오늘은 얼마나 즐겁소?” 하였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그 얼굴을 보니, 전날의 모습과는 달리 거무티티할 뿐더러 얼기까지 한 것이었다. 그래서 크게 놀라 낮빛마저 잃으면서 감사가 그 이유를 물으니 팔쥐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종일토록 이 곳에서 서성거리며 영감께서 오시기를 기다려 일광을 쬐어 이토록 검은 빛이 되었습니다. 엷어 보이는 것은 다름아니라 아까 영감께서 들어오시는 줄 알고 허둥지둥 뛰어 가다가 그만 발이 걸려 콩 멍석에 엎어지는 바람에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감사는 늙은 남편인 자기를 부인이 사모함을 고맙게 여겨 여러 말로 위로하며 다만 얼굴이 변한 것만을 애석하게 여길 뿐, 사람이 바뀐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다.

5. <보기> 예측

—< 보 기 >—

「콩쥐팍쥐전」은 계모와 전실 자식 간의 관계를 소재로 하는 '계모 설화' 계열의 작품이다. 그런데 「콩쥐팍쥐전」은 결말에서 계모와 팍쥐가 철저히 응징되는데, 이는 설화에 없는 내용으로 허구적인 창작에 의해 가미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콩쥐팍쥐전」은 '신데렐라형 설화'에 속하는데, '신데렐라형 설화'의 결말은 대부분 남녀 주인공의 혼인으로 끝난다. 하지만 「콩쥐팍쥐전」에서는 혼인 이후의 사건을 추가하여 주인공의 죽음, 주인공의 재생 등 비현실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권선징악의 주제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악인을 철저히 응징하는 내용 등이 의도적으로 덧붙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13. 성조풀이 : 중요도 : 하>

1. 주변 상황 : 집이 없어 힘들어하는 인간
2. 반응 : 인간을 위해 집을 지음
3. EBS 본문 내용 요약 : 천궁대왕과 옥진부인이 성조씨를 낳는다. 인간 세계에 집을 지어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고, 자신의 빛난 이름 또한 알리고자 함
4. <보기> 예측

—< 보 기 >—

「성조풀이」는 가옥 신앙의 대상인 성조신의 내력을 담고 있는 서사무가이다. 고귀한 신분의 인물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시련을 극복하고 과업을 성취하는 '성조'의 일대기는 영웅 서사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성조'가 인간계의 결핍을 해소하고 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내력을 통해 신성한 공간으로서의 집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성조풀이」는 초월계와 인간계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도 공통된 삶의 방식과 규범이 있다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전자의 예로는 성조가 '지하국 내려가서' 무주공산의 나무를 살펴본 후 '나무 없는 사정을' 알리기 위해 '천상옥경 높이 솟아' 옥황님께 아뢰는 모습은 천상계와 인간계가 분리된 공간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줌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후자는 천상계의 '성조 부친'과 '성조 모친'이 자식을 낳기 위해 부처님 앞에 치성을 드리기 위해 절을 찾아가거나 여러 신들에게 온갖 정성을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는 자식을 낳기 위해 인간계의 인간들이 치성을 드리는 모습과 다르지 않으므로 초월계와 인간계의 공통된 삶의 방식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12. 흥보가 : 중요도 : 상>

1. 주변 상황 : 빈곤과 고난
2. 반응 : 매품팔이까지 불사하려 함, 권선징악
3. EBS 본문 내용 요약 : 알고 계신 내용 그대로
4. 나올 부분

[아니리] 그때여 놀보가 흥보 부자 되었던 말을 듣고 건너왔제. “야, 이놈이 정말로 부자가 되었네.” “여봐라, 흥보야.”하고 불러노니 흥보가 자기 형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나오며, “형님 건너 오셨습니까?” “오냐, 너 요새 성하냐? 그런데 네가 요새 밤이슬을 맞는다제?” “형님, 그 밤이슬이 뭇이오니까?” “네가 도적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관가에서 너를 잡으러 다니니, 네 집과 재산을 나한테 인계하고 먼 곳으로 가서 십 년만 있다 오니라. 네 집은 내가 잘 봐주마.” “형님 그제 아니올시다.” “그럼, 어째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 “그런 게 아니라 제비 다리 부러진 것을 동여 살려 보냈더니, 그 이듬해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어서, 동편 처마 끝에 심었더니 박 세 통이 열려 박통 속에서 은금보화가 나와 부자가 되었지, 도적질은 무슨 도적질이오니까?” “야, 그 부자 되기 천하 쉽구나.” 흥보가 자기 형님을 사랑에 모셔 놓고 안으로 들어가, “여보 마누라, 건넌 마을 시숙님이 건너오셨으니 나와 인사나 드리시오.” 흥보 마누라가 시숙한테 구박 당하던 일을 생각하면 사지가 벌렁벌렁 떨리나, 가장의 명령을 거역 못하여 나오는데,

[중모리]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전일에는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이야 비단이 없나, 돈이 없나, 쌀이 없나, 은금보화가 없나, 녹용 인삼이 없느냐. 며느리들을 호사를 많이 시키고, 흥보 마누라도 한산 세모시다가 당청엿물을 포로소름하게 놓아, 주름은 잘게 잡고, 말은 널리 달아 아장거리고 나오더니,

[아니리] 시숙께 인사를 드리면, 이놈이 제수가 인사를 허거든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 흥보야! 제수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용 되었구나.”

(중략)

[아니리] 과하주 좋은 술을 화잔에다가 가득 부어 “엇소, 시숙님. 박주하나 약주 한 잔 잡수시오.” 이놈이 제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여봐라, 흥보야! 너는 형제간이라 내 속을 잘 알지? 나는 남의 소대상날에 가서 술을 먹어도, 술잔 끝에 권주가 없이는 술 안 먹는 줄 너 잘 알제? 권주가 한 마디 시켜라.”

“형님 권주가 할 사람이 있어야지요?” “야, 이놈아. 네 여편네 메초 초롬하게 꾸민 김에 권주가 하나 시켜, 이놈아!”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마는,

[진양조] “여보시오, 시숙님! 여보 여보, 아주버님! 제수더러 권주가 하란 말씀은 고금천지 어디 가 보았소? 지성이면 감천이라, 나도 오늘은 쌀과 돈이 많이 있소. 전곡 자세를 그만하오. 엄동설한 추운 날에 자식들을 앞세우고, 구박을 당하여 나오던 일을 곱속에 들어도 못 잊었소. 보기 싫소, 어서 가시오! 속을 차리면 뭇하러 내 집에 왔소? 안 갈라면 내가 먼저 들어갈라요.” 떨쳐 버리고 안으로 들어간다.

[아니리] 놀보가 이만하고 보더니마는, “야, 흥보야. 네 계집 못쓰겠다. 썩 버려라. 내가 다시 새 장가들여주마.”

“형님 처분대로 하옵시오.” “그런데 저 윗목에 있는 빨건 것이 무엇이나?” “화초장이올시다.”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금보화가 들었습지요.” “거 날 다오.” “그런해도 형님 드리려고 은금보화 담뿍 넣어서 제직해 왔습니다.” “이리 내 뇌라,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형님 건너가시면 내일 하인에게 지워 보낼 테니 그냥 건너가십시오.” “에이 식식치 못한놈. 나 간 뒤에 좋은 보물은 다 빼내고, 빈 케만 보낼라고? 아니다. 매사는 붙여튼튼이라 허였으니,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이리 내뇌라.”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 봐 외고 가는데,

[중모리]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도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잇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장화초. 초장화. 아이구, 이것무엇이나? 갑갑하여서 내가 못살겠다. 아이고, 이거 무엇이나?”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루루루루 쫓아나와서 영접하는 게 도리가 옳제, 좌이부동이 웬일인가? 에라, 이 사람 몫쓸 사람.” 놀보 마누라 나온다.

놀보 마누라가 나와.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영감 오신 줄내가 몰랐소. 이리오시오. 이리와.”

[아니리] 화초장을 짊어지고 들어가면서 저의 마누라더러 묻것다. “여보 마누라, 내 등에 짊어진 것이 무엇이오?” “영감은 무엇이오?” “아, 나는 알지마는 임자가 알아맞혀 보란 말이여.” “우리 친정에서 그러는데, 그걸 화초장이라 함디다.” 놀보가 어찌 좋았던지, “얼씨구, 내 딸이야!” “아니 여보, 마누라 보고 딸이란 데가 어디 있던 말이오?” “급할 때는 이리도 쓰고 저리도 쓰제.” “그런데 그 화초장은 어디서 났소?” “흥보 집을 갔더니, 흥보가 과연 부자가 되었는데. 제비 다리 부러진 것을 동여 살려 보냈더니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어, 그걸 심어 박 세 통이 열려 박통 속에서 은금보화가 나와 부자가 되었다네. 그놈은 한 마리를 분질러 보내 부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제비 여남은 마리만 분질러 살려 보내면 거부 장자가 될 것이 아닌가?” 그날부터 제비 딱지 수천 개를 만 들어서 동편 처마 끝에 달았더니, 집이 동편으로 썩름했었다.

- 작자미상, 「흥보가」

5. <보기> 예측

이 작품은 가난하지만 착한 흥보와 부유하지만 욕심이 많고 심술궂은 놀보를 주인공으로 흥보의 성공과 놀보의 몰락을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의 교훈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과 경제적 능력을 갖춘 서민들이 등장하던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었다고 보면 신분 간의 갈등을 다룬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1. 전우치전 - 최하>

(안 나옴. 나오면 내가 전우치임)

<10. 속향전 : 상>

1. 전체 줄거리

송나라 때 김전이란 인물이 있었다. 어느 날 어부들이 거북을 구워먹으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구해 놓아준다. 그 후 김전이 홍수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 거북이 나타나 김전을 구한다. 김전은 이후 장 씨와 결혼하여 늦도록 자식이 없다가, 명산대찰에 기도를 올린 뒤 딸을 낳는다.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아기는 천상에서 죄를 지어 적강한 월궁소아임을 알려주고, 이름을 속향이라 지을 것을 이야기한다. 이후 전란이 일어나 속향이 부모와 헤어지게 된다.

부모를 잃은 속향은 장 승상 댁의 양녀가 된다. 장 승상 댁의 시비인 사향이 속향을 모함해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 속향은 물에 빠져 죽으려 하나 용녀가 구해준다. 이후 불에 타 죽을 위기에서는 화덕진군에 의해 구출된다. 또, 굶어 죽을 위기에서는 마고 할미의 도움으로 살게 되고, 이화정에서 함께 지내게 된다.

이화정에서 속향은 수를 놓으며 지냈는데, 꿈속 광경을 수로 놓는다. 할미가 이를 장사꾼에게 팔았는데, 장사꾼이 수를 이선에게 가져간다. 이선은 꿈에서 본 광경이 수로 놓인 것을 보고 이화정을 찾아간다. 할미를 통해 속향의 존재를 알게 된 이선은 속향을 찾아다니고, 마침내 속향과 가연을 맺는다.

이선의 아버지인 이 상서는 낙양 수령 김전에게 명해 속향을 문초하게 한다. 김전은 속향이 자신의 딸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문초하나 그때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나 번번이 실패하고, 결국 김전은 이 상서에 의해 쫓겨난다.

할미는 하늘로 올라가고, 속향은 방황하다가 이 상서의 부인을 만나는데, 속향의 비범함을 알아본 이 상서 부부는 마음을 돌려 이선과의 관계를 허락한다. 이선은 장원급제를 하고, 속향은

장 승상과 김전을 다시 만나게 된다. 이때 이전에 이선의 혼처로 정해졌던 양왕과 그의 딸은 앙심을 품고 있었다. 황태후를 위한 선약을 구하는 일에 이선이 가게 되고, 이선은 여러 고비를 넘겨 봉래산에 선약을 구해와 초왕에 오른다. 이후 속향과 행복하게 살다가 칠십 세에 천상계로 함께 올라간다.

3. 나올 부분 : 속향의 고난, 이선의 위기

이때 속향이 물에 뛰어드니 검은 소반 같은 것이 물밑으로부터 속향을 태우고 물 위에 섰는데 편하기가 반석 같았다. 이윽고 오색 구름이 일어나며 사양머리를 한 계집아이가 연엽주를 바삐 저어 앞에 다다라 말하기를,

“부인은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하니 그 검은 것이 변하여 계집아이가 되어 속향을 안아서 배에 올리고 아이 둘은 속향을 향하여 재배하여 말하기를,

“귀하신 몸을 어찌 이렇듯 가벼이 버리십니까? 저희는 항아의 명으로 부인을 구하러 오다가 옥하수에서 여동빈 선생을 만나 잠시 술을 마셨는데 하마터면 부인을 구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고 용녀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어디로부터 와서 구하셨습니다?”

용녀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전에 사해용왕이 수정궁에 모여 잔치를 할 때 저의 사랑하는 시녀가 유리종을 깨트렸기에 행여 죄를 얻을까 하여 감추었더니 부왕이 아시고 노하여 첩을 반하수에 내치시매 물가로 다니다가 어부에게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 상서*의 구함을 입어 살아났으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제 부왕이 옥경에서 조회할 때 옥제 말씀을 듣사오니 ‘소아가 천상에서 득죄하여 김 상서 집에 적강한 뒤로 도적의 칼 아래 놀라게 하고, 표진강에 빠져 죽을 액을 당하고,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고, 낙양 옥중에서 죽을 액을 지낸 후에야 태을을 만나게 하라.’ 하시고 물 지키는 관원을 명하여 ‘기다렸다가 죽이지는 말고 옥만 뵈어 보내라.’ 하시기에 제가 특별히 김 상서의 은덕을 갚고자 하여 자원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대가 또 구하시니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속향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물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속향은 용녀에게 묻기를,

“당신은 물 위를 마치 평지같이 다니니 누구신지요?”

“저는 동해 용왕의 셋째 딸로서 이 표진강 용왕의 아내이온데, 예전에 당신의 부친께서 저를 구해 주신 은혜를 갚으려고 왔다가 가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어서 의탁할 곳이 없어 남의 집의 시녀가 되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분해서 이 물에 빠져 죽으려 하였더니, 이렇게 구제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자 용녀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인간의 화식(火食)을 먹어서 우리를 잘 모르시는군요.”

하고, 옆에 찻던 호로병(胡虜甁)을 기울여서 차를 따라서 권하

여 주면서 말하기를,

“이 차를 마시게 되면 아시게 되오리다.”

숙향이 그 차를 받아서 마시니, 정신이 상쾌해져서 천상의 옛 기억이 역력해져서, 자기가 분명히 월궁소아로서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다가, 사랑하는 태을진군(太乙眞君)과 글을 지어 창화(唱和)*하고, 월영단(月靈丹)을 훔쳐서 태을진군에게 준 죄로 인간세계로 귀양갔던 기억이 역력하더라. 그리고 연엽주를 저어서 자기를 구하려고 달려온 선녀 같은 두 소녀는 월궁에서 자기가 부리던 시녀인 줄도 알게 되매, 서로 붙들고 대성통곡하여 마지않더라. 소녀들은 숙향을 위로하였으나, 숙향은 그 전의 하늘에서 시녀로 부리던 옛날 소녀들을 선녀로 대접하고 공손한 말로,

“우리 부모는 봉래산의 선관 선녀로서 옥황상제께 득죄하고 인간으로 내려와서 딸을 잃고서 간장을 녹이는 고통으로 천상의 죄를 속죄하도록 하심이니, 딸된 나로서 어찌 한이 되지 않으리까. 장승상 집에는 10년간의 연분이 있으나, 더 잊지 못하고 쫓겨 나왔습니다.”

“그 집의 사향이란 계집종은 당신을 모해하여 누명을 씌운 죄로, 항아께서 옥황상제께 고하여 이미 벼락을 쳐서 죽였으므로, 당신의 억울한 누명은 장승상 부부도 잘 알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당신의 뒤를 찾아 강가에까지 와서 찾다가 그냥 돌아갔으니, 이제 당신은 액운을 세 번 지낸 셈입니다. 앞으로도 두 번의 액운이 남아 있으니 조심하소서.”

“아직도 무슨 무슨 액이 있다는 말씀이오?”

숙향은 깜짝 놀라 묻더라.

“노전(盧田)에 가서 화재를 보시고, 낙양옥중에서 부친께서 죽을 액을 겪으시고, 그 뒤에 마침내 태을진군을 만나서 부귀영화를 누리실 것입니다.”

“아아, 나는 이미 지낸 액도 천지망극한데, 앞으로도 두 번이나 액이 있다 하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소. 장승상 부인이 나를 다시 생각하시리니 다시 그 댁으로 가서 액을 면할까 하오.”

“액운은 이미 하늘이 정하신 바니, 장승상 집으로 가서도 면할진 못하리다. 태을을 만나지 못하면 승상부인의 힘으로는 부모님 만나기가 아득하되다. 그러나 태을이 계신 곳이 삼천여 리나 되는 먼 길이외다.”

“태을은 누구이며, 이승의 인간의 성명은 무어라 하는지요?”

“항아님 말씀을 듣사오니, 태을이 낙양 북촌리의 위공(偉功)의 자제가 되어 일생 부귀를 누리게 되었다 하옵니다.”

숙향은 그 말을 듣고 탄식하며,

“월궁에서 서로 같은 죄를 짓고서, 그는 어찌 부귀가 극진하고, 나는 어찌 이토록 고생을 겪어야 하는고. 더구나 그 태을 있는 곳이 여기서 삼천 리라 하니, 그를 만나지 못하면 누구를 의지하며 그리운 부모를 언제나 만나 뵈을까?”

하고 눈물을 비 오듯 흘리니라. 그러자 선녀가 위로하여 말하되,

“그것은 근심 마시오. 육로로 가면 일 년을 가도 못가지만, 이 연엽주를 타시면 순식간에 득달할 것이오니, 또 천태산 마고 선녀(麻姑仙女)가 당신을 위해서 인간으로 내려와서 기다린 지 오래매, 의탁할 곳이 자연 있으니 염려 마시오.”

- 작자 미상, 「숙향전」 -

* 김 상서: 숙향의 아버지.

* 창화: 한쪽에서 부르고 한쪽에서 대답함.

겸해 뛰어나고 시서(詩書)에 능통하였다. 양왕이 공주를 낳을 때 얻은 꿈에 선관이 매화꽃 한 가지를 주면서, “이 꽃은 봉래산(蓬萊山)의 설중매(雪中梅)니, 그대는 이 매화나무에 오얏(李)나무를 접하면, 지엽(枝葉)이 번성하리라.” 하더니, 과연 그 달부터 부인이 잉태하여 만삭에 공주를 낳았으므로 이름을 매향(梅香)이라 하고 자를 봉래산이라 하였으니, 점점 자람에 따라 용모와 재주가 비상하니, 양왕이 애중하여 배필 고르기를 여간 엄격하게 하지 않더라.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선을 한번 보고 대현 군자(大賢君子)인 줄 알고 구혼하여 그의 부친 위왕의 허락을 얻고, 장차 길일을 택하려고 하던 차에 이선이 다른 데 취처함을 알고 크게 노하여 퇴혼하려고 하였으나, 매향 공주가 말하기를,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이요, 열녀불경이부(列女不更二夫)라 하나이다. 소녀 차라리 불효를 끼쳐서 목숨을 바칠지라도 타문(他門)에는 결단코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부친의 뜻에 따르지 않으며, 양왕이 오래 침묵하고 생각한 끝에 말하기를,

“내 슬하에 아들이 없고 오직 너 하나뿐이라 어진 사위를 얻어 후사를 위탁하고자 하거늘, 네가 그러하니 이것이 모두 이 아버지의 박복한 탓이다.”

하고 긴 한숨을 쉬며 탄식하니, 공주가 재배하고,

“소녀는 부모의 말씀을 수화(水火)라도 피하지 않사오나, 이번 일만은 순종할 바가 아니오매, 그 죄로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고 공주가 뜻을 변하지 않으므로 양왕은 매우 근심하던 차에 이선의 벼슬이 초공에까지 이름을 보고, 왕비 최씨와 상의하여 말하되,

“이제 이랑의 벼슬이 초공에 이르고 위인이 특출하니, 매향은 그 둘째 부인으로 삼아도 좋을까 하는데 당신의 의향은 어떻소?”

“그 애한테 물어 보십시오.”

공주를 불러 물어본즉,

“타문에는 가지 않기로 결심한 저인데 차비(次妃) 됨을 어찌 욕되다 하오리까.”

“그러면 위왕을 만나서 다시 의논해 보겠다.”

하고 이튿날 아침 조회에 들어가서 어전에서 위왕을 보고,

“위왕은 우리 집과 혼인을 이미 허락하고 타처와 하신 것은 웬일이오?”

하고 추궁하자, 위왕이 부끄러워하면서 사과하고,

“저로서 약속을 어김은 닳 돌 곳이 없사오나, 당초에 제가 상경한 사이에 만수에게 선의 수양을 시켰더니 제가 서울에서 귀가(貴家)의 소저와 약혼한 줄을 모르고 타문에 혼인하였으니, 지금 와서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황제가 나서서 말하기를,

“이선의 일은 짐이 다 아는 바이니, 그의 불민함도 아니고 천정(天定)함이니, 다투지 말고 양왕은 다른 데 구혼함이 어떤가?”

양왕이 머리를 숙이고 말하되,

“성교(聖教) 지당하오나 신의 딸이 그냥 늙을지언정 타문을 밟지 않으려 하오니 그 정상이 가장 민망하옵니다.”

황제가 매향 공주의 뜻을 칭찬하시고,

양왕은 황제의 셋째 아우인데, 그 무남 독녀는 용모와 재주가

“경녀(卿女)의 절행(節行)이 죽히 고인에 못지 않으니 기특하다. 이제 이선의 벼슬이 죽히 두 부인을 두리니, 경의 뜻이 어떤고?”

양왕은 황제의 말에 즉시 찬성하여 사은하였으나, 위왕은 옆드려서 아뢰되,

“양왕의 공주는 금지옥엽(金枝玉葉)이라 선의 차위(次位)에 굴(屈)함이 불가하오나, 어찌 성교를 위월(違越)하오리까?”

“짐이 이제 이선을 불러 결단하겠소.”

하고 선을 부르시니, 초공이 필경 양왕의 혼사인 줄을 알고, 병을 빙자하고 부르심에 응하지 않자 근심한 정렬부인 숙향이,

“황상께서 명초(命招)하시는데 어찌 칭병하십니까?”

“이번에 부르심이 양왕의 혼사 때문이라 칭병하고 피할 생각이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정색을 하고,

“공(公)이 비록 나를 위하여 주니 감사하오나, 신자(臣子)의 도리로 옳지 못합니다.”

“나도 그런 줄을 알지만, 어전에서 사혼(辭婚)하면 죄를 면치 못할 것이요, 만일 그 여자를 취하여 불미한 일이 생기면 부인의 괴로움이 적지 않을 것이요, 하물며 그 여자가 국척(國戚)의 위세를 빙자하여 가중(家中)을 탁란(濁亂)시키면 우리 가문의 청덕(淸德)이 이로 인하여 손상되리니, 황송하나 거절함만 같지 못하오.”

“그러나 그 혼사를 거절함은 두 가지 뜻에서 불가하옵니다. 하나는 군명(君命)을 거역함이 신자(臣子)의 도리가 아니요, 하나는 그 여자가 타문에는 출가하지 않고 백 년을 독수공방하오면 그 원한을 사나이 대장부가 살 바가 아닙니다.”

부인의 이런 충고에도 이선이 마침내 듣지 아니하더라.

사관이 돌아가서 그대로 고하자, 황제가 양왕에게 이선이 병으로 입궐하지 못한다 하니 다음 기회로 하자고 말씀하셨으나, 양왕은 초공이 혼사를 거절하고 거짓 병으로 어명(御命)까지 거역함을 짐작하고 격분하여 장차 이선을 해칠 양심을 품게 되니라.

- 작자 미상, 「숙향전」 -

4. <보기> 예측 : 고난과 극복의 교차 구조

— < 보 기 > —

「숙향전」은 천상계의 인물이 천상에서 죄를 지어 인간계로 귀향을 왔다가 다시 천상계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적당 소설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또한 주인공이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 어려서 고아가 되고 구출자를 만나 양육되었다가, 다시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영웅 소설의 성격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작품에 동원되는 시·공간적 배경이나 특정 소재들은 사건의 신비감을 부여하고 이야기에 환상성을 더하기도 한다.

<9. 유우춘전 : 중>

1. 상황 : 자신의 음악적 가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음

2. 반응 : 연주를 그만 둠

3. 전체 줄거리 :

'나'는 음악에 조예가 깊은 서기공 앞에서 벌레 소리, 새소리를 해금으로 흉내냈는데, 이를 들은 서기공은 '나'의 연주는 거지 깡깡이 소리라며 유우춘, 호궁기와 같은 연주를 해야한다고 말한다. 어느 날 '나'는 먼 일가인 금대거사를 만나 유우춘의 소식을 알게 되고, 유우춘을 찾아가 서기공과의 일화를 이야기하며 해금 연주를 잘 하는 방법을 묻는다. 유우춘은 뜻밖에도 거지 깡깡이 소리나 자신의 연주나 모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 또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연주하는 것이라 말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연주를 높게 평가하지만, 정작 연주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며 오히려 거지 깡깡이 소리를 연주하는 이들이 돈도 잘 번다며 현실에서 느낀 바를 '나'에게 이야기한다. 이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유우춘은 더 이상 해금 연주를 하지 않았고, '나'는 유우춘이 말한 '기예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를 곱씹으며 해금을 넘어 다른 일의 이치를 떠올린다.

4. <보기> 예측

— < 보 기 > —

「유우춘전」은 당시 천시하던 기예였던 해금의 장인으로 그려진 유우춘의 생애를 전기화한 소설로, 예술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의 불일치 속에서 고뇌하던 예능인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유우춘은 음악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고, 결국 악기에서 손을 떼버리기에 이른다. 작가 유득공으로 대변되는 '나'는 유우춘의 일화를 통해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8. 옥루몽 : 상>

1. 전체 스토리

옥황상제가 베푼 연회에서 문창성은 취중에 다섯 선녀들을 희롱하며 즐기다가 잠이 든다. 이때 문창성과 선녀들은 지상계에 다시 태어나 문창성은 양창곡, 제방 옥녀는 윤 소저, 천요성은 황 소저, 흥란성은 강남홍, 제천 선녀는 벽성선, 도화성은 일지련이 된다.(이원적 구조)

양창곡은 16세가 되는 해에 과거를 보려고 황성으로 가다가 강남홍을 만나 연을 맺는다. 또, 강남홍은 윤 소저를 양창곡에게 천거하여 연을 맺도록 한다. 양창곡이 황성으로 떠나자, 소주 자사 황공이 강남홍을 보고는 한눈에 반해 연회에 불러 그녀를 겁박하려 한다. 강남홍은 절개를 지키기 위해 강물에 뛰어 들었는데, 윤 소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다.(강남홍의 위기)

강남홍은 탈탈국으로 가서 머물게 되고, 양창곡은 편지를 통해 강남홍이 강물에 뛰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한다. 양창곡은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고, 윤 소저와 결혼한다. 본래 천자는 양창곡에게 황 각로의 딸과 혼인할 것을 명했지만, 양창곡이 이를 어기고 윤 소저와 결혼하면서 강주로 유배를 가게 된다. 강주에서 벽성선을 만나 인연을 맺고 천자의 생일에 예부시랑을 제수받아 황성으로 가게 된다. 양창곡은 천자의 명령에 따라 황 각로의 딸인 황 소저와 결혼하게 되고, 벽성선도 황성으로 부른다. 이때 남만이 침입하자 양창곡은 대원수가 되어 전쟁에 나간다. 남만의 원수는 강남홍이었는데, 강남홍은 명나라의 대원수가 양창곡이라는 것을 알고 도망친 뒤 양창곡과 재회한다. 남만국의 공주인 일지련은 양창곡을 보고 반해 아버지에게 항복을 권한다. 이후 천자의 명령으로 흥도국의 항복도 받아낸 양창곡은 연왕의 자리에 오른다. 그사이 황 소저는 벽성선을 위협에 빠뜨리는데, 양창곡의 부하에게 구출되어 양창곡과 재회한다.(황 소저 : 개과천선의 유형) 이후 연왕이 된 창곡은 두 부인, 세 첩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천상계로 돌아가 선관이 된다.

3. EBS 본문 요약 : 강남홍의 위기와 죽은 줄 오해하는 장면

4. 나을 부분 : 재회 장면

뇌천풍이 바라보고 있다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도끼를 휘두르며 나갔다. 강남홍이 웃으며 말했다.

“노장(老將)은 노쇠한 정력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오. 내가 마땅히 당신의 목숨을 빌려 줄 테니 노장은 갑옷 위에 칼자국

을 살펴보고 내 숨씨를 보시구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부용검을 휘두르며 몇 합 맞붙어 싸웠다. 뇌천풍이 자신의 갑옷을 내려다보니 칼자국이 낭자했다. 그는 싸울 생각이 없어지면서 말을 돌려 돌아갔다. 명나라 진영의 여러 장수들이 서로 돌아보며 출전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양창곡이 크게 노하여 분연히 일어났다. 청충사자마(靑廳獅子馬)에 걸터앉아 장팔탱천이화창(丈八撐天梨花槍)을 들고 붉은 도포에 금빛 갑옷을 입었다. 허리에는 활과 화살을 두르고 진영 앞에 나와 섰다. 소유경이 간하여 말했다.

“원수께서 황제의 명을 받들어 삼군을 지휘하시니, 국가의 안위가 원수 한 몸에 달려 있으며 종묘사직의 중대함이 진퇴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필마단기(匹馬單騎) 혼자 힘으로 친히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한때의 분노로 승부를 내려 하시니, 이어찌 몸을 보전하고 나라를 위하는 뜻이라 하겠습니까?”

이때 양창곡은 소년의 날카로운 기상으로, 강남홍의 무예가 절륜한 것을 알고 한번 대항해 보고 싶어서 소유경의 간언을 듣지 않고 말을 달려 출전했다. 강남홍은 원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 말을 돌려 칼을 휘두르며 그를 맞아 싸웠다. 그러나 일 합을 맞붙기 전에 강남홍의 총명으로 어찌 양창곡의 모습을 몰라보겠는가. 너무 기빠 눈물이 먼저 흐르며 정신이 황홀하여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그러나 지기지심(知己知心)*을 가진 양창곡이라도 한밤중 황천으로 영원히 떠난 강남홍이 지금 만리절역(萬里絕域)*에서 자기와 싸우는 오랑캐 장수가 되었으리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양창곡이 창을 들어 강남홍을 찌르니, 그녀는 머리를 숙여 피하면서 쌍검을 던지고 땅에 떨어지며 낭랑하게 외쳤다.

“소장이 실수로 칼을 놓쳤습니다. 원수는 잠시 창을 멈추고 칼을 줍도록 해 주시오.”

양창곡은 그 목소리가 귀에 익어서 창을 거두고 그 모습을 살폈다. 강남홍은 칼을 거두어 말에 오르더니 양창곡을 돌아보며 말했다.

“천첩 강남홍을 어찌 잊으실 수 있습니까? 첩은 당연히 상공을 따라야 하나, 제 수하의 노졸이 오랑캐의 진영에 있사오니, 오늘밤 삼경에 군중에서 만나뵙기를 기약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채찍질을 하여 오랑캐의 본진을 향하여 훌쩍 돌아갔다. 양창곡이 창을 짚고 조각상처럼 서서 오래도록 그쪽을 바라보다가 본진으로 돌아왔다. 소유경이 물었다.

“오늘 오랑캐 장수가 그 재주를 다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 일까요?”

양창곡이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진영을 화과동으로 옮겼다.

한편, 강남홍은 만왕을 보고는 말했다.

“오늘 명나라 원수를 거의 사로잡을 뻔했는데, 몸이 불편하여 진을 퇴각시켰습니다. 내일 다시 싸워야겠습니다.”

나탁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장군께서 불편하시다면 과인이 마땅히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 직접 간병을 하겠습니다.”

“대왕께서는 염려 마시고 조용히 요양하도록 해 주시오.”

나탁은 즉시 가장 여유롭고 외진 곳으로 객실을 옮겨 주었다. 그날 밤, 강남홍이 손삼랑에게 말했다.

“아까 양 공자님을 싸움터에서 만나, 오늘 밤 삼경에 명나라

진영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소.”

손삼랑이 크게 기뻐하며 짐을 챙겨서 삼경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양창곡은 본진으로 돌아가서 군막 안에 누워 생각하였다.

‘오늘 싸움터에서 만난 사람이 진짜 강남홍이라면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남쪽 오랑캐 지역을 평정하는 것 역시 쉬우리라. 이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 홍랑이 세상에 살아 있어 여기서 만난 것은 꿈에서도 예기치 못한 일이라. 이는 필시 홍랑의 원혼이 흠어지지 못한 것이리라. 남방에는 예부터 물에 빠져 죽은 충신 열녀가 많은 곳이라, 초강(楚江)의 백마(白馬)*와 소상강(瀟湘江) 반죽(斑竹)*에 외로운 혼이 여전히 있어서 오가며 서성거리다가, 내가 이곳에 온 걸 알고 평생의 원한을 하소연이나 해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오늘 밤 우리 진영 안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니 그 시간을 기다려 보면 알게 되겠지.’

그는 촛불을 돋우며 책상에 기대어 시간을 알리는 북소리를 헤아리며 앉아 있었다. 얼마 후 삼경 일점(三更一點)이 되자 주변 사람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군막에 쳐 두었던 장막을 걷어 올린 뒤 기다렸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촛불에 불어오자 한 줄기 푸른 기운이 장막 안에서 일어났다. 양창곡이 정신을 집중하여 자세히 살피니, 한 소년 장군이 쌍검을 짚고 표연히 들어와서 촛불 아래에 섰다. 놀라서 살펴보니 분명히 아득한 저승으로 생사의 길 이별하고 오묘한 마음으로 자나깨나 잊지 못하던 강남홍이었다. 양창곡이 묵묵히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홍랑아, 네 죽어서 영혼이 왔느냐, 살아서 진짜 얼굴로 왔느냐? 나는 네가 죽었다고 알 뿐 살아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구나.”

강남홍 역시 울음을 머금고 흐느끼면서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 남영로, 「옥루몽」 -

* 지기지심 : 서로 마음이 통하여 지극하게 알아줌.

* 만리절역 : 매우 떨어진 지역.

* 초강의 백마 : 중국 초나라의 굴원이 모함을 입고 초강에 몸을 던져 죽은 후 그의 죽음을 슬퍼하던 말.

* 소상강 반죽 : 순임금이 죽자 아내인 아황과 여영이 소상강 가에서 슬피 울었는데 그 눈물이 강가의 대를 물들여 대에 흑색의 무늬가 남았다는 고사.

5. <보기> 예측

—< 보 기 >—

조선 후기에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나 여성 인물의 비중이 높아진 소설이 창작되었다. 이러한 소설 작품에서는 대체로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 여성이 등장하게 되어 주로 남성 위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며,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조선 사회 전반에 근대적 평등의식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시대 변화에 따른 민중의 의식 변화와 맞물려 작품 내의 여성의 위치가 변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주동 인물이 아닌 남성의 조력자에 머무는 점은 여전한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7. 창선감의록 : 상>

1. 상황 : 가정 내의 권위 문제, 처첩 간의 갈등

2. 반응 : 지혜로운 극복

3. 인물 관계

- 화옥(총신) VS 엄승(간신)

- 심씨, 화춘 VS 화진, 화빙선

- 화춘 VS 임소저(화춘의 아내이면서 화진을 옹호)

- 임소저 VS 조녀(조녀는 화춘의 첩이면서 악인)

- 성부인 : 화옥의 누이이자 화옥의 아들인 화진을 도움

4. EBS 본문 요약 : 화진이 괴롭힘 당하는 부분

4. 나올 부분

조씨 여자는 먼저 임 소저를 몰아내고자 하여 밤낮으로 춘에게 참소했다. 춘이 말했다.

“임씨의 죄는 내가 짐작하지만 만일 내쫓는다면 형옥(화진의 字*)이 뭐라고 할 게 분명하오. 성품이 강렬하니 이상한 일이라도 벌일까 두렵소.”

조씨가 박장대소(拍掌大笑)하며 말하기를,

“상공께서는 형이시고, 한림은 아우가 아닙니까? 형이 그 아내를 내친다는데 아우가 어찌 감히 이상한 일을 벌인단 말입니까? 설령 임씨가 자결한다 해도 상공께서는 해로울 게 없지 않아요? 상공께서는 손바닥에서 일어나는 일도 처단하지 못하시니 가엾기 그지없습니다.”

춘은 오히려 주저했다.

하루는 춘이 장평과 범한과 더불어 서로 의논하여 계략을 내기로 결단한 후에

죽우당에 이르러 당나라 역사책을 펼쳐 보는 척하다가 책을 덮고 진에게 물었다. “예전에 한나라 무제는 진황후가 투기가 있음을 알고 쫓아낸 일이 있었지. 그 임금의 처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은 형의 흥계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을 솔직히 말했다.

“남자는 양덕이요 여자는 음덕이라고 했으니 양덕이 음덕보다 강해야 바르다고 하겠지요. 한나라 무제에게도 본래 여색을 밝히는 마음이 있었으니 황후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자의 투기는 칠거지악 중에도 으뜸이니 내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춘은 매우 기뻐하며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임 씨가 쾌악하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을 근심하고 괴로워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참고서 내치지 않은 것은 고모님께서 지나치게 사랑하시고 형욱까지 그 여자 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모님도 안 계시고 형욱도 이렇게 말했으니 입이 열 개라도 다른 말을 못하겠지요. 어서 지금 임 씨를 내치고 조씨를 정실로 삼았으면 합니다.”

심 부인이 놀라서 말했다.

“그 애의 죄는 남편의 풍정을 받아 주지 않는 것뿐인데 어찌 투기가 있다고 하느냐? 나도 이미 그 아이에게 정이 들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춘이 여러 번 간청했으나 심 부인은 듣지 않았다.

이때에 조씨는 시비 난수를 시켜 범함과 통하게 하여 일을 꾸미도록 했다. 난수는 계향을 비롯한 여러 종과 합심하여 흉하고 끔찍한 물건들을 심 부인의 방에 물었다. 그러고는 계향을 시켜 누군가를 저주하는 물건들을 파내게 하면서 “임 소저가 한 일이다.”하고 고하게 했다. 노한 심 부인은 며느리를 크게 꾸짖고 집 밖으로 내쳤다. 임 소저를 모시던 하인들이 정신을 잃고 울었다. 윤 부인과 남 부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탄했다. 화진은 관을 벗고 맨발로 계단 아래에 엎드려 통곡했다. 심 부인이 크게 노하여 말했다.

“임녀의 투기가 질투로 유명했던 옛날의 진황후보다 심하더구나. 공연히 남편을 거절하여 잠자리에 들지도 못하게 하니 경옥(화춘의 字)이 모자라지 않고서야 어찌 분하지 않겠느냐? 조씨가 들어온 후로는 임씨의 투기가 날로 더해져 천고에 없는 요상하고 잔악한 변고가 내 침실에까지 미쳤구나. 이는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경옥이 스무 살인데 아직 자식 하나 없으니 장차 임씨 여인 때문에 화씨 가문의 대를 끊어지게 하려는 게냐? 네 뜻을 보니 형이 후사가 없게 하여 가문의 혈통이 너에게 돌아가게 하려는 게 아니냐?”

진이 울며 읊하고 간하느라 이마를 땅에 부딪치니 피가 흘러 얼굴에 가득했다. 심 부인이 꾸짖어 말했다.

“내 며느리를 내가 내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심 부인은 사내 종을 시켜 진을 문밖으로 내치게 했다. 진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쳐하시던 백화현에 가서 통곡했다. 조금 뒤에 범한이 백화현에 갔다가 이것을 보고 놀라 뛰어와 고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말을 들은 진은 분노가 일어나 건장한 사내 종을 시켜 범한을 붙들고 수십 바퀴를 휘두르게 했다.

“너같이 교활하고 흉악한 자가 어찌하여 재상가를 어지럽혀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였느냐?”

범한은 기운이 없어 입만 병긋병긋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은 다시 수십 번을 휘둘러 밖으로 끌어내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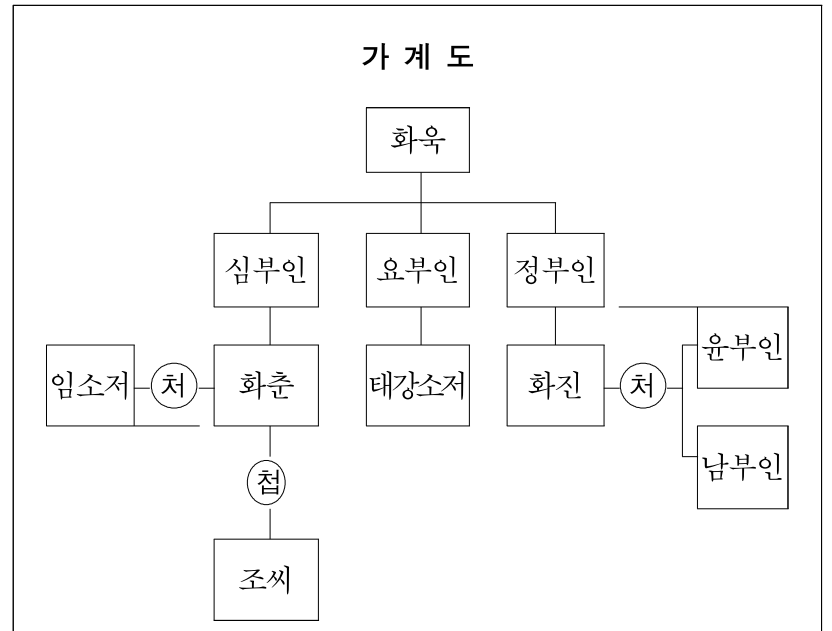
이날 임 소저는 문밖으로 끌려 나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사당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두 번 절하고 가마에 올랐다. 유모와

시비들이 울면서 따라가니 화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심씨 모자와 조씨 여인 외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 조성기, 「창선잡의록」 -

* 자(字) : 본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

5. 가계도



6. 전체 줄거리

병부상서 벼슬을 지내는 화욱에게는 심 씨, 정 씨, 요 씨 세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세 부인으로부터 각각 화춘, 화진, 화빙선을 얻는다. 요 씨가 일찍 죽는 바람에 정 씨가 화진과 화빙선을 함께 키웠는데, 정 씨도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다. 화욱은 장자 화춘 대신 화진을 편애했는데, 이 때문에 화춘과 그의 어머니 심 씨는 불만을 가진다. 화욱은 벼슬을 내려 놓은 뒤 고향으로 돌아와 지냈는데, 머지않아 죽게 된다. 이때부터 화진은 화춘과 심 씨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화진은 장원급제를 하여 벼슬길에 오르지만, 화춘의 모함으로 귀양을 가게 된다. 이때 해적이 쳐들어오는데, 화진이 해적을 무찌르며 공을 세운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은 화진은 천자로부터 남방을 평정하라는 명을 받는다. 화진은 명령대로 남방을 평정해 공을 세우고 진국공에 봉해진다. 이후 화춘과 심 씨도 죄를 뉘우치고 화목한 가문이 된다

<6. 만복사저포기 : 상>

1. 상황 : 외로웠던 양생이 죽은 여인을 만나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

2. 반응 : 죽은 자임을 앞에도 사랑을 추구하는 애정 지상주의적 자세

3. EBS 본문 요약

날이 밝자 여인은 양생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데려가 대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 며칠 후

양생이 돌아갈 때가 되자 여인은 은그릇을 주며 다시 만날 때 가져오라고 말한다. 이튿날 양생이 약속대로 그릇을 들고 기다리는데, 귀족 집안의 행렬을 만나게 된다. 집안의 하인 하나가 양생이 들고 온 그릇을 알아보고 주인에게 고하니, 주인이 양생을 불러 이야기를 한다. 주인은 양생이 만난 여인이 자신의 딸이며, 왜구가 침입했을 때 해를 입어 죽었는데, 임시로 묻어두었다가 오늘에서야 재를 올리려고 가는 길이라고 했다. 양생은 여인의 부모를 먼저 보내고 약속대로 여인을 기다렸다가 만나서 함께 올라간다. 양생은 여인의 부모와 함께 재를 지낸 뒤 여인과 이별을 하고, 명복을 빌며 혼자 지리산에서 약초를 캐며 남은 생을 보낸다.

4. 나을 부분 (인연을 맺는 부분)

- 삽입시의 역할 : 정서 환기
- 은그릇 : 여자 쪽 부모의 의심이자, 만남의 매개이자, 인연의 징표가 됨.

전라도 남원에 살고 있는 양생은 일찍이 어버이를 여윈 뒤 여태껏 장가를 들지 못하고 만복사 동쪽 골방에서 홀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고요한 그 골방 문 앞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우뚝서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이하여 꽃이 활짝 피어 온 뜰 안 가득 백옥의 세계를 환하게 밝혀 놓았다. 그는 달 밝은 밤이면 언제나 객회(客懷)를 억누르지 못하여 나무 밑을 거닐곤 했는데, 어느 날 밤 그 꽃다운 정서를 건잡지 못하고 문득 시 두 수를 지어 읊었다.

한 그루 배꽃나무 적료함을 짝하고
가련하다 달 밝은 밤 헛되이 보내나니
젊은이만 홀로 누운 외로운 창가에
어디서 고운 님은 옥통소를 불고 있나

짝 못 지은 비취새 외로이 날아가고
짝 잃은 원앙도 맑은 강에 노니는데
뒤 집에서 바둑 두리란 약속이 있으려나
밤이면 서러운 창에 기대 불꽃점을 쳐 보네.

시를 다 읊고 나자 별안간 공중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진정으로 자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하는데 그 무엇이 어려울 게 있으리오.”

이 소리를 듣고 양생은 크게 기뻐하였다.

그 이튿날은 마침 삼월 이십사일이였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그곳 마을의 많은 청춘 남녀들이 으레 만복사를 찾아가 향불을 피우고는 각기 제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 이날 양생은 저녁에 기도가 끝나자 법당에 들어가서 소매 깊이 간직하고 갔던

저포(樗蒲)를 꺼내어 불전에 던지기 전에 먼저 소원을 빌었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저녁엔 제가 부처님과 함께 저포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면 법연(法筵)을 차려서 부처님께 갚아드릴 것이고, 만일 부처님께서 지시면 반드시 제 소원인 어여쁜 아가씨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중략)

여인은 품속에서 뭔가 글이 적힌 종이를 꺼내어 탁자 앞에 바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무 고을 아무 땅에 사는 아무개가 아뢰옵니다.

지난날 변방을 잘 지키지 못해 왜구가 침략하였습니다. 창과 칼이 난무하고 위급을 알리는 봉화가 몇 해나 이어지더니 가옥이 불타고 백성들이 노략질 당하였습니다. 이리저리로 달아나 숨는 사이 친척이며 하인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연약한 여자인지라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스스로 구방 속에 들어가 끝내 정절을 지켜서 무도한 재앙을 피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여자가 절개를 지킨 일을 옮겨 여기셔서 외진 땅 외진 곳의 풀밭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셨으니(여인이 이미 죽은 자임을 암시), 제가 그곳에 머문 지도 이미 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을 하늘에 뜬 달을 보고 봄에 핀 꽃을 보며 헛되이 세월 보냄을 가슴 아파하고, 떠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시냇물처럼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입니다. 텅 빈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기구한 제 운명에 한숨짓고, 좋은 밤을 홀로 지새우며 오색찬란한 난새가 혼자서 추는 춤에 마음 아파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제 낮은 녹아 없어지고, 여름밤 겨울밤마다 애간장이 찢어집니다. 바라옵나니 부처님이시여, 제 처지를 가엾게 여겨 주소서. 제 앞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기구한 운명일망정 인연이 있다면 하루 빨리 기쁨을 얻게 하시어 제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 주소서

(중략)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함께 개령동으로 향하였다. 어느 한 곳에 이르니 다복축이 들을 덮고 참천한 고목 속에 정쇄한 수간 초당이 나타났다. 양생은 아가씨가 이끄는 대로 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는 침구와 휘장이 잘 정리되어 있고, 밥상을 올리는데 모든 음식이 어젯밤 만복사의 차림과 차이가 없었다. 양생은 펍이나 기쁜 마음으로 이틀 동안 유유히 보냈다.

시녀는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조금도 교활한 면이 없었다. 좌우에 진열되어 있는 그릇들은 깨끗하고 품위가 있어 그는 간혹 의아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은근한 정에 마음이 끌려 다시금 그런 생각을 되풀이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양생에게 말했다.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곳의 사흘은 인간의 삼 년과 같습니다. 가연을 맺은 지가 잠깐인 듯하오나 오래 되었사오니, 너무 서운하긴 하나 당신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셔서 옛날의 살림을 돌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여보시오. 이별이라니 갑작스레 그게 웬 말이오?”

“오늘 못 다 이룬 소원은 내세에 다시 만나 다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예절도 인간과 다름이 없사오니 저의 친척과 이웃 동무들을 만나보고 떠나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대화가 끝나자 그녀는 시녀를 시켜 친척과 이웃 동무들을 초대하였다.

5. <보기> 예측 : 김시습 작가의 삶과도 연관(생육신이었으며, 능력이 있었음에도 벼슬에 나아가지 못함. 그러한 한계를 환상적 소설을 씀으로서 정신적으로나마 극복하려 했음을 알 수 있음)

< 보 기 >

「만복사저포기」의 양생은 불우한 삶으로 인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양생은 결국 현실에서 문제 해결의 출구를 만들지 못하다가 환상 세계의 존재와 교류하게 됨으로써 욕망의 충족을 경험한다. 하지만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는 서로 다른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환상 세계에서 이룬 욕망의 성취는 현실 세계에까지 이어지지 못한다.

<5. 공방전 : 중>

1. 전체 줄거리

공방은 구멍이 모가 나게 뚫린 돈에서 딴 이름이다. 본래 수양산에 숨어 살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관상가에게 조언을 들은 황제에 의해 세상에 그 이름이 드러났다.

안과 밖이 다른 외모처럼 공방은 때에 따라 변화를 잘하며 욕심이 많은데 염치는 없었다.(외양과 성격의 연결)

그런 그는 권력자들에게 붙어 많은 재물을 모은다. 황제로부터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일을 하는 벼슬을 받은 공방은 상업을 흥하게 하여 사람들이 농업을 중시하지 않았다. 또, 권세가들과 친하게 지내며 벼슬자리를 사고팔아 재산을 늘렸는데, 나라가 곤궁하고 어지러워지자 공우가 글을 올려 공방이 쫓겨나도록 했다.

(당시 시대 : 매관매직 등의 문제 상황)

공방이 죽은뒤, 그를 따르던 무리가 권세를 찾아 또다시 나라를 어지럽게 했다. 이에 사신은 공방과 공방의 무리들은 없애야 한다고 평가했다.(돈에 대한 부정적 평가 확인)

2. 주요 사항

- 가전체 작품(실존 인물이 아닌, 사물이 주인공이 되는 것)

- 우화와의 차이점 : 우화는 다른 동물로 대체 가능하지만, 가전체는 사물 자체의 속성이 주제와 긴밀히 연결되므로 다른 주인공으로 대체할 수 없다.

- 당시 사회 : 물질주의적 사고, 매관매직의 성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김현감호 : 하>

1. 전체 줄거리 : 벼슬을 원했던 김현이 처녀로 둔갑했던 호랑이의 희생으로 자신의 바라는 바를 이루게 됨

2. <보기> 예측

< 보 기 >

「김현감호」는 일연의 『삼국유사』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 일연이 살았던 당시의 고려는 불교 신앙을 장려하면서도 유교적 윤리관을 보급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일연은 절을 세워 주기를 원하는 종교적 인물이나 자기희생을 통해 인(仁)을 이루려는 윤리적 존재를 주인공으로 삼은 글을 많이 수록하였다. 「김현감호」의 경우에도 불교적 신앙을 가지고 가부장적 제도와 남녀 성별 위계의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3.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 중요도 : 중하 - 나오면 타작품과 결합>

1. 상황 : 마귀의 공주 납치, 부하의 배신

2. 반응 : 승리

3. 전체 스토리 요약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는 납치된 공주와 공주를 구출한 남주인공의 결연담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된 신이담(神異譚)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를 사건 순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하국에 사는 요괴가 공주들을 납치하자 무사와 부하들이 공주들을 구하기 위해 뜻을 모음.
- (2) 무사의 꿈에 나타난 산신령의 도움으로 무사가 바구니를 타고 요괴가 있는 지하국에 진입함.
- (3) 무사가 요괴의 거처에 들어가고, 공주들이 직접 요괴의 약점인 비늘을 떼어내어 죽이는 데 성공함.
- (4) 무사가 공주들은 지상으로 올려 보내지만 부하들의 배신으로 무사는 지하 세계에 남게 됨.

(5) 무사는 산신령의 도움을 받아 다시 지상으로 나오게 되고, 무사는 공주 중 한 명과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됨.

4. <보기> 예측

<「최고운전」과의 비교>

최충이 문창 수령으로 부임했을 때, 금돼지가 부인을 납치한다. 그러나 부인의 기지로 금돼지를 죽이고 돌아와 여섯 달 만에 곧 최치원을 낳았다. 충은 아들이 금돼지의 자식이라 하며 길거리에 버리지만, 선녀가 내려와 치원을 기른다. 뒤에 충이 데려오려 했더니, 부모의 무도를 힐난하며 거절하였다. 하루는 중원의 천자가 치원의 시 읊은 소리를 듣고, 재사 두 사람을 보내 대적하게 했으나 패배하고 돌아간다. 천자가 크게 노하여, 돌함에 계란을 넣고 밀봉하여 신라에 보내 돌함 속에 든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짓지 못하면, 신라를 섬멸하겠다고 한다. 이때 치원이 나 승상의 딸을 아내로 삼아 주는 조건으로 돌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짓는다. 시를 받아 든 천자가 놀라 치원을 죽이려고 중국으로 불러들인다. 치원은 중국으로 가는 길에 용궁에서 환대받고, 노구와 미녀로부터 난관을 극복할 방법을 알게 된다. 낙양에 도착한 최치원은 천자의 간계를 모두 물리치고 중원 학자들과의 문장 대결에서도 승리한다. 때마침 황소의 난이 일어나매, 치원이 격문을 지어 항복을 받으니, 천자의 신하들이 시기하여 죽이려고 고도로 유배를 보내지만 치원은 살아서 돌아온다. 치원은 사람을 몰라보는 황제 밑에서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신라로 돌아와 가야산에 들어가 신선이 된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 시간과 공간 막연, 출생 확인 불가
 최고운전 : 구체적, 출생의 기이함

<금령전>과의 비교)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에서 남주인공이 찾아간 요귀의 거처에는 공주들이 잡혀 있었다. 또한 금령전에서도 요귀의 거처에는 잡혀 온 공주 일행이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와 금령전 모두 요귀의 거처에 공주가 있다는 설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에서는 남주인공을 배신하는 부하들로 인해 남주인공이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금령전에서는 이러한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에서는 남주인공이 요귀가 있는 지하국에 진입하기 위해 바구니를 이용하지만, 금령전에서는 남주인공이 바구니를 타고 요귀의 거처에 들어가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에서는 초현실적 존재인 산신령이 꿈에 나타나 남주인공을 요귀의 거처로 인도하고, 금령전에서는 구름 속에서 신이한 목소리가 들려 해룡이 요귀의 거처로 가도록 이끌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남주인공이 요귀의 거처로 가도록 이끄는 초현실적 존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심청가 : 중요도 : 상>

1. 상황 : 아버지의 눈이 보이지 않음

2. 반응 : 희생으로 효를 이루고, 차후에 왕비가 됨.

3. EBS 본문 요약 : 심청이 아버지가 맹인 잔치에서 눈을 뜨는 부분

4. 나올 부분

- 공동체적 성향이 다분한 부분(젓동냥할 때 마을 사람들의 태도 : 내 자식은 굶겨도 심청은 굶기지 않겠다.)

- 이본 비교(장승상댁 부인, 옥진 부인의 이야기 삽입 이유 : 심청의 신분 상승에 대한 정당성 획득)

- 초월계와 현실계에서의 사건들

하루는 옥황상제께서 사해용왕에게 말씀은 전하시기를, “심 소저 혼약할 기한이 가까우니, 인당수로 돌려보내어 좋은 때를 잃지 말게 하라.”

분부가 지엄하시니 사해용왕이 명을 듣고 심 소저를 보내실 제, 큰 꽃송이에 넣고 두 시녀를 곁에서 모시게 하여 아침저녁 먹을 것과 비단 보배를 많이 넣고 옥 화분에 고이 담아 인당수로 보내었다. 이때 사해용왕이 친히 나와 전송하고 각궁 시녀와 여덟 선녀가 여쭙기를,

“소저는 인간 세상에 나아가서 부귀와 영광으로 만만세를 즐기소서.” 소저 대답하기를,

“여러 왕의 덕을 입어 죽을 몸이 다시 살아 세상에 나가오니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녀들과도 정이 깊어 떠나기 섭섭하오나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기에 이별하고 가기는 하지마는 수궁의 귀하신 몸 내내 평안하옵소서.”

하직하고 돌아서니, 순식간에 꿈같이 인당수에 번듯 떠서 뚜렷이 수면을 영롱케 하니 천신의 조화요 용왕의 신령이었다. 바람이 분들 끄떡하며 비가 온들 떠내려 갈소냐. 오색 무지개가 꽃봉 속에 어리어 동덩실 떠 있을 적에, 남경 갔던 뱃사람들이 억 십만 금이 문을 내어 고국으로 돌아오다가 인당수에 다다라서 배를 매고 제물을 깨끗이 차려 용왕에게 제를 지내면서 비는 말이,

“우리 일행 수십 명 몸에 재액을 막아 주시고 소망을 뜻한 대로 이루어 주셔서 용왕님의 넓은 덕택을 한 잔 술로 정성을 드리오니, 어여빠 보셔서 이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제를 올린 뒤에 제물을 다시 차려 심 소저의 혼을 불러 슬픈 말로 위로한다.

“출천 효녀 심 소저는 늙으신 아버지 눈 뜨기를 위하여 젊은 나이에 죽기를 마다 않고 바닷속 외로운 혼이 되었으니 어찌 아니 가련하고 불쌍하리오. 우리 뱃사람들은 소저로 말미암아 장사에 이문을 내어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소저의 영혼이야 어느 날에 다시 돌아올까? 가다가 도화동에 들어가서 소저의 아버지 살았는가 여부를 알아보고 가오리다. 한 잔 술로 위로하니 만일 아시거든 영혼은 이를 받으소서.”

제물을 풀고 눈물을 쏟고 나서, 한곳을 바라보니 한 송이 꽃봉이 너른 바다 가운데 동덩실 떠 있으니 뱃사람들이 괴이히 여겨 저희들끼리 의논하기를,

“아마도 심 소저의 영혼이 꽃이 되어 떴나 보다.”

가까이 가서 보니 과연 심 소저가 빠졌던 곳이어서 마음이 감동하여 꽃을 건져 내어 놓고 보니, 크기가 수레바퀴처럼 생겼고 두세 사람이 넉넉히 앉을 만했다.

5. <보기> 예측

한편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민중적인 가치를 담아 발전해 간 판소리계 소설은 현실적인 요소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홍부전」, 「심청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물의 극단적인 성격과 사건의 극적인 전개 등은 여전히 기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환상계가 현실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계질서를 갖추게 됨으로써, 환상계의 질서에 귀속되는 비현실성이 사건의 극적인 전개에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1. 이춘풍전 : 중요도 : 중상>

1. 상황 : 남편의 주색으로 인한 가산 탕진

2. 반응 : 아내의 지혜를 통한 극복

3. EBS 본문 요약 : 돈을 돌려받은 춘풍은 서울로 돌아와 집에서 아내를 만난다. 김 씨가 아무 것도 모른다고 생각한 춘풍은 장사에 성공한 척 아내에게 큰소리를 친다. 김 씨는 춘풍 몰래 다시 비장으로 변장을 하고 춘풍의 앞에 나타나 그를 꾸짖는다. 영문도 모르는 춘풍은 비장의 등장에 당황해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김 씨는 변장을 벗고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춘풍은 그 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김 씨와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낸다.

4. 나올 부분

- 여성의 능력이 남성의 방탕함보다 우위에 있음. (경제권에 대한 언급 중요)

- 옷 = '권위'이자 여성으로서는 사회적 지위 획득이 어려운 당시 시대상 반영

춘풍의 처 하는 말이,
“부모 조업 누만금(累萬金)을 주색(酒色)으로 다 없애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후에 혹시 침재, 길쌈, 방직하여 돈푼을 모을지라도 그 무엇을 아낄손가?”

춘풍이 대답하되,

“자네 말이 내 행세를 믿지 못하니, 이후 주색잡기 없기로 수기(手記)를 써 줘세.”

지필을 내어 수기를 쓰는구나.

‘모년 모월 모일 수기를 기록하여 전하노라. 이춘풍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누만금을 주색잡기로 다 써버리고, 돌이켜 뉘우치니 후회막급이라. 차일 후로 가중지사(家中之事)를 모두 김 씨에게 맡기므로, 김 씨 치산(治産) 이후로는 누만금의 재산이라도 진실로 김 씨의 재산이요, 가부(家夫) 이춘풍은 한 푼 돈 한 말 곡식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리라. 이후

에 또 다시 주색을 밝힌다면 이 수기를 들고 관아에서 판결을 받을 것이라. 증인에 가부 이춘풍이라.’

책명하여 주니, 춘풍 아내의 거동 보소.

“수기를 들고 관아의 판결을 받겠다 하였으나, 내 어찌 가장(家長)을 걸어 송사(訟事)를 할손가.”

춘풍이 이 말 듣고 수기를 고쳐,

‘이것은 김 씨에게 올리는 수기라. 일후 만약 또 다시 잡기에 빠진다면 진실로 비부지자*라, 수기를 들고 일을 살피리라.’

하여 주니, 김 씨 받아 함롱에 넣고 이 날부터 치가(治家)를 한다.

침재 길쌈 능란하다. 오 푼 받고 새버선 짓기, 서 푼 받고 새김볼 박기, 두 푼 받고 한삼 짓기, 서 푼 받고 헌옷 깎기, 네 돈 받고 장옷 짓기, 닷 돈 받고 도포하기, 엿 돈 받고 천익* 짓기, 일곱 돈 받고 금침하기, 한 냥 받고 돌찌누비, 두 냥 받고 바지누비, 세 냥 받고 긴옷 누비, 넉 냥 받고 관복 지며, 겨울이면 무명나이, 여름이면 삼베길쌈, 가을이면 염색하기, 이렇게 사시장철 주야로 쉴 새 없이 사오 년을 모은 돈을 장변이며 월수 놓아 수천 금을 모았고 나. 의식이 넉넉하고 가세가 풍족하여 그럴 것이 바이었다.

이때에 춘풍이 아내 덕에 의복관망 꾸미고 고량진미 함포고복(含哺鼓腹)하여 술로 매일 장취하는구나. 마음이 교만하여 이전 행실 절로 난다.

평평거리고 내달아서 호조(戶曹) 돈 2천 냥을 대돈변*으로 얻어내어 박물군자인 채하고 평양으로 장사 가려 하니,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이 말 듣고 크게 놀라 춘풍더러 하는 말이,

“여보시오 서방님, 내 말 잠깐 들어 보소. 이십 전에 부모 조업 탕진하고 그 사이 오 년을 결단하고 앓았다가 물정 어두운데 평양 장사 가지 마오. 평양 물정 내 들었소. 변화 사치하고 분벽사창 청루미색* 단순호치(丹脣皓齒)* 반개(半開)하고 고운 노래로 교태하여 돈 많고 허랑한 자는 제 세워 두고 벗긴다는데, 평양 물정 이렇다니 부디 장사 가지 마오.”

지성으로 만류하니 춘풍이 하는 말이,

“나도 또한 사람이지, 이십 년 전에 패가(敗家)하여 원통하기 골수에 박혔으니 천금진산환부래(千金盡散還復來)*라 하였으니 난들 항상 패가할까 속속이 다녀옵세.”

춘풍 아내 이른 말이,

“연전에 한 푼 돈도 한 말 곡식도 참견 아니 할 뜻으로 수기 써서 내 함롱에 넣었거든 그 사이 잊었는가. 의식을 내게 믿고, 편안히 앉아 먹고 부디부디 가지 마소.”

[중략 줄거리] 평양에 간 춘풍은 기생 추월에게 빠져 호조 돈을 모두 잃고 추월의 집 종으로 일한다.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 남장(男裝)을 하고 비장(裨將)이 되어 춘풍을 찾아간다.

“막중 호조(戶曹) 돈 수천 냥을 가지고 사오 년이 되도록 일 푼 상납 아니하니, 호조 관자(關子)* 내어 너를 잡아 죽이라 하였으니, 너는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는가. 매우 치라.”

분부하니, 사령 놈이 매를 들고 십여 대를 중타하니 춘풍의 다리에 유혈이 낭자하거늘 비장*이 보고 차마 더 치진 못하고,

“춘풍아, 네 그 돈을 어디다 없앴느냐? 바로 아뢰라.”

춘풍이 대답하되,

“호조 돈을 가지고 평양 와서 일 년을 추월과 놀고 나니 일푼도 남지 않고, 달리 한 푼 쓴 일 없삽나이다.”

비장이 이 말 듣고 이를 갈고 사령에게 분부하여 추월을 바빠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 매고 별태장(別笞杖) 골라잡고,

“조금도 사정없이 매우 치라.”

호령하여 십여 장을 중치하고,

“이년 바빠 다짐하라. 네 죄를 모르느냐?”

추월이 정신이 아득하여 겨우 여쭙오되,

“춘풍의 돈은 소녀에게 부당하여이다.”

비장이 대노하여 분부하되,

“네 어찌 모르리요. 막중 호조 돈을 영문에서 물어 주라. 분부에서 물어주랴? 네 먹었는데 무슨 잔말 아뢰느냐? 너를 쳐서 죽이리라.”

주장대로 지르면서,

“바빠 다짐하라.”

오십 대를 중히 치며 서리같이 호령하니, 추월이 기가 막혀 질겁하여 죽기를 면하려고 아뢰되,

“국전(國錢)이 지중하고 관령(官令)이 지엄하니, 영문 분부대로 춘풍의 돈을 다 물어 바치리이다.”

- 작자 미상, 「이춘풍전」

5. <보기> 예측

< 보 기 >

조선은 가부장제 사회였지만 임병양란을 거치며 가장의 무능한 모습이 부각되어 그 권위가 흔들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부도덕하게 사는 남성들이 존재했는데, 「이춘풍전」에는 이런 남성들에 대한 풍자가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이 소설에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난을 해결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 해결 방식이 남장을 통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여성의 지위가 제약되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